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Min Final Project Approval Sheet

This DMin Final Project entitled

**A PROPOSAL FOR TRUE SPIRITUAL WORSHIP THROUGH LAY
PEOPLE'S UNDERSTANDING OF WOR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LORD ALL NATIONS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Suk Bae So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has been read and approved by the undersigned member of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entor: Seonmook Shin, DMiss

March 2018

Date _____

**A PROPOSAL FOR TRUE SPIRITUAL WORSHIP THROUGH LAY
PEOPLE'S UNDERSTANDING OF WOR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LORD ALL NATIONS PRESBYTERIAN CHURCH**

평신도들의 예배에 대한 이해 연구와 진정한 영적 예배를 위한 제안
- 주열방교회를 중심으로 -

By

Suk Bae Song

A DMin Final Project Presen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March 2018

ABSTRACT

Song, Suk Bae

2018

“A Proposal for True Spiritual Worship through Lay People’s Understanding of Worship, with Special Reference to Lord All Nations Presbyterian Church.”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19 pp.

This dissertation’s thesis starts with a definition of worship, and changes in worship over time through the bible and the history of church. The purpose is to direct next generation’s worship by understanding lay’s consciousness of worship in JooYulBang Church, and to take lesson from its negative and positive practices.

Through biblical theological perspective, this research will examine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s worship, and the changes of worship in Korean Church. Furthermore, it will comprehend the lay’s consciousness in worship of JooYulBang Church with four types of worship consciousness.

This research answers the following questions: 1. What is the primary focus of ministry? 2. What is the meaning of worship as primary focus of ministry? 3. What are the forms of worship in biblical theological perspective from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and what does this worship contribute to us? 4. How does lay of JooYulBang Church perceive worship and define it? 5. From the practical perspective, when spirituality of worship practice is fully practiced, what influences can church contribute to its community? 6. What are the directions of worship for the next generation?

This dissertation will consist of 8 chapters. First, it will specifically state the need to study worship and its current situations in church, and it will address the research background, purpose, goal, importance, core task, questions, methods, terminology, and research introduction.

Chapter 2 will define worship and its purpose. Chapter 3 will include history of worship in comparison with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and Chapter 4 will analyze the changes of worship in Korean churches through changes of Korean history. In Chapter 5, through the survey of JooYulBang Church, it will understand the lay's consciousness on worship, and categorize four types of worship. Chapter 6 will deal with four spirituality of worship that was arranged previously, and will provide practical perspectives with the case study of successful, and unsuccessful worship practice in churches. Chapter 7 will propose direction of worship for new and next generation centering around four types of worship consciousness from the previous chapters. Chapter 8 will summarize, and conclude with proposing direction of worship for the next generation.

Mentor: Seonmook Paul Shin, D. Miss

358 words

개요(ABSTRACT)

송석배

2018 “평신도들의 예배에 대한 이해 연구와 진정한 영적예배를 위한 제언-
주열방교회를 중심으로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chool of
Intercultural Studies. Doctor of Ministry in Global Ministries. 119 pp.

본 논문에서 논자는 예배의 정의로 출발해서 성경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예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열방교회의 평신도 예배의식을 파악하고, 부정적, 긍정적 실례를 교훈 삼아 다음 세대의 예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신구약의 예배, 한국교회의 예배 변화의 모습을 정리하고, 주열방교회의 평신도 의식을 파악하여 가지고 있는 4가지 예배의식을 중심으로 논문을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목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2. 목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예배가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3. 성경신학적 신구약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며, 한국교회 예배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4. 주열방교회 평신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5. 실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배의 영성이 온전히 실천될 때 교회가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6.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방향을 위한 제안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전체가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논문의 제1장은 예배에 대한 연구가 왜 필요한가의 필요성과 현주소를 간단히 짚어보면서,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중심과제, 질문들, 범위와 연구 방법 등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본론의 내용인 제2장은 예배의 정의와 목적, 제3장은 신구약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예배를, 제4장은 한국교회의 예배의 변천 역사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평신도의 예배에 대한 의식을 알기 위해 주열방교회를 중심으로 서베이의 방식을 통해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예배의 의미와 영성, 말씀과 실천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제6장은 앞에서 정리한 내용이 현장에서 실천적 관점으로 적용되어 성공한 교회와 실패한 교회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제7장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영적예배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말씀 중심의 예배와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복음의 증인으로 전도와 선교, 지역으로 참여와 변화를 이끄는 방향을 제언하였다. 제 8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으로 종합 정리하였다.

Mentor: Seonmook Paul Shin, D. Miss

294 words

헌정(DEDICATION)

하늘 나라에 계신 아버지 송병옥집사님과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최성희권사님!

주열방교회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목회의 멘토 되시는 원로목사 조태성목사님과 평생의 동역자 심현숙전도사님

주열방교회 당회원이신 신태식장로님, 하재돈 장로님,

가정의 이지은사모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 선민, 재민에게

이 논문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중도에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고비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붙잡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드립니다.

목사로 소명을 주시고 부르셔서 목사로 기름 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세를 광야 훈련을 통해 훗날 출애굽 광야의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사울의 출생과 학문과 열심이 훗날 변화된 바울을 통해 이방의 빛이 되는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일생을 통해 얻은 삶의 경험과 학업과 심지어 아픔까지도 사용하실 계획 가운데 평생 섬기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주열방교회의 열방지기로 목회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끝까지 학업을 마치게 동역해 준 친구요 동역자인 이우용목사님과 장익봉목사님, 신성철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주열방교회의 조태성원로목사님과 심현숙전도사님께 함께 신나게 꿈과 사랑을 나누며 동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논문을 위해 아낌없이 수고해 주신 신선목교수님을 비롯해 많은 도움을 주신 최윤정교수님,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신 이정우목사님께, 그리고 김중수선교사님, 이재석목사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어머니 최성희권사님을 비롯해 이지은 사모, 선민이와 재민이게도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ABSTRACT.....	ii
개요(ABSTRACT).....	iv
헌정(DEDICATION)	vi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	vii
목차(TABLE OF CONTENTS).....	viii
표 목록(LIST OF TABLES)	xi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Background)	2
연구의 목적(Purpose).....	4
연구의 목표(Goals)	4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4
연구의 중심과제(Central Research Issue)	5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5
연구의 범위(Delimitations)	5
연구의 방법(Methodology)	6
연구 개관 (Overview of the Study).....	7
제 2 장 예배의 정의와 목적.....	8
예배의 정의	8
예배의 언어적 정의	8
예배의 신학적 정의	11
예배의 목적	14
제 3 장 예배의 역사.....	18
구약의 예배	18
예배의 날(일자와 절기).....	21
예배의 내용	22
신약의 예배	24
예배의 장소	24
예배의 날	27
예배의 내용	29

제 4 장 한국 교회의 예배.....	31
한국교회 예배의 유형(장로교회 중심으로).....	31
전통 예배의 유형	31
특징	31
단점	33
새시대 유형	34
신우회 예배	35
학원선교 예배	35
특수공동체 예배(정일웅 1998:336).....	35
한국교회 예배의 흐름(19세기~2000년대).....	36
한국교회 예배 변천의 고찰을 통한 과제.....	43
제 5 장 평신도의 예배에 대한 의식(주열방교회를 중심으로).....	48
예배의 의미와 목적	48
예배와 영성	55
예배와 말씀	61
예배와 실천	67
제 6 장 실천적 관점에서 본 사례 고찰.....	72
일산신성교회	72
영광의 예배	73
양육과 제자훈련	75
친교와 교제	76
증거와 선교	76
사회봉사	77
영진교회	80
목회철학	81
지역을 섬기는 사역	82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83
중단된 사역	84
제 7 장 진정한 영적예배를 위한 예배의 방향(주열방교회를 중심으로).....	86
말씀 중심의 예배	86
함께 드리는 예배(명칭: 아우름 예배-세대를 아우르는 예배).....	88
경배와찬양	89
진인격적인 예배 지향	90
목회자 리더십	91
성만찬이 회복된 예배	93
삶으로 선포하는 예배	94
복음을 전하는 예배	100
지역전도	100
세계선교	103
지역으로 참여와 변화를 이끄는 예배.....	104
주열방교회의 지역 상황	107
주열방교회의 지역사회봉사 비전	108

제 8 장 결론	112
요약	112
결론	115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117

표 목록(LIST OF TABLES)

<표 1> 구약의 예배(제사)	23
<표 2> 19세기 선교 초 교회 예배	37
<표 3> 1890년~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이전까지 예배	37
<표 4> 1906년~1920년대의 한국교회 예배	38
<표 5> 1920년~해방전 한국교회 예배	39
<표 6> 1950년~1960년 한국교회 예배	40
<표 7> 1970년 ~ 1980년 한국교회 예배	41
<표 8> 1990년이후 한국교회 예배	42
<표 9> 주열방교회 주일 예배 순서	62
<표 10> 문답식 신앙고백 - 사도신경	63
<표 11> 평신도의 주일예배 요소의 중요도	64

제 1 장

서론

21세기 한국교회의 미래를 밝게 보는 견해는 찾아보기 힘든 반면 좋지 않은 전망으로 보는 견해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 원인은 다양하다. 교회 내부적 원인으로 사회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교회에서는 ‘은혜롭게’ 라는 표현과 함께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고, ‘좋은게 좋은거다’ 라는 올바르지 않은 관행이 근절되기는 커녕 묵인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발생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 예산 사유화로 인한 배임행위, 권위주의적 발상의 교회 세습, 이 외에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미치는 여러 종류의 악영향들이 내부적으로 어두운 전망을 더 짙게 만들고 있다.

외부적인 원인으로 몇몇 대형교회들을 통해 드러난 치부로 인해 교회에 대한 강한 불신과 거부감이 있고, 사회 전반적인 추세로 결혼기피 및 출산 기피로 인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다음세대의 숫자적인 감소, ‘혼밥’이 인정받고 각광받는 시대적 분위기 등이 있다. 그리고 이를 내다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안일한 자세의 교회적 대응과 더불어 전문적이지 못한 시대 분석과 대처 등이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보는 원인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점점 교회를 더욱 위축되게 하며, 복음이 세상을 향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급수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즐겁고, 좋은 것으로 위안 삼고 안주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 되는 것이 또 다른 차원의 부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원인 중 내부적인 원인의 이유를 들자면 첫째, ‘은혜’ 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못 알고 사용하는 것이다.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은혜인 줄 착각하는 것이 이유인 것이다. 둘째, 목사들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하겠다. 리더십 중에도 청지기와 종의 리더십의 부재가 그 이유이다. 셋째, 논문에서 살피겠지만 예배의 변천에

따른 피해로 잘못된 권위주의가 세워진 것이 이유이다. 넷째, 경제원리가 들어올 때 선별하거나 거르지 못한 분별력의 부실이 그 이유라고 하겠다. 이런 이유 외에도 더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논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한다. 참된 예배의 부실이 바로 그것이다. 옷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절대 마지막까지 단추를 채울 수 없고 바르게 옷을 착용할 수 없다. 온전히 드리지 않는 예배, 예배의 열납과는 상관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시간만 보내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지 사람들과의 만남이 전부인 예배, 하나님의 진의가 담겨져 좌우에 양날 선 검과 같은 설교 말씀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의 심령 골수 골수를 수술할 수 있는 능력이 배제된 예배가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확신하는 예배,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곳을 향하여 거침없이 달리는 예배, 멈추라 할 때 주저함 없이 멈출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있을 때 지금 우리와 다음세대에 희망이 있는 것이다.

논자는 예배를 주제 삼아 현 평신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의식, 즉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바라고,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온전한 예배를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논자가 담임하고 있는 주열방교회를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주열방교회의 다음세대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배경(Background)

논자는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주열방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담임목사가 되기까지 한국성서대학을 졸업 후 1996년에서 1999년까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였고,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은 후 2000년부터 2007년까지 7년 동안 일산신성교회에서 부목사로 교구 담당목사로 사역하면서 4년 동안 중고등부, 3년 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담당했다. 7년 사역 기간에 목장교회와 D12(두날개훈련)와 경배와 찬양을 중고등부에 예배 사역으로 접목하였고, 일산신성교회 사임 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노량진에 위치한 영진교회에서 행정담당 및 교구와 청년부 사역을 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 미자립 교회 담임목사로 1년 사역 후 사임하고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에서 예배 사역을 하였고, 2013년 경배와찬양에서 첫 개척사역으로 개척한 교회의 부목사로 올네이션스 경배와찬양 사역과 주일 예배와 아동부를 사역하였다. 그리고 2014년 지금 담임으로 있는 주열방교회(당시 갈현은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여 2018년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다.

주열방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예배처소가 서울 갈현동 소재에서 현 경기도 일산 행신동 소재로 옮겨졌다. 이러한 목사로의 과정 속에서 항상 예배 인도자로서 있어야 했다. 그러나 예배 인도자이며 또한 예배자임을 언제나 잊지 않으면서 항상 예배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한 만남이 주된 관심사였다.

이런 관심사는 주열방교회를 담임사역을 통해서 더욱 깊어졌고, 부임 첫해부터 지금까지 성도들과 함께 울며 웃으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감격 속에 주일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하여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야 진정한 예배인 것이다.

부임 후 성도들과 함께 드러지는 예배는 눈물이 마르지 않고, 기도와 찬양, 실천적 삶의 결단으로 풍성하였다. 이러한 결단이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삶으로 어떻게 이어지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예배가 불신자를 비롯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예배가 오늘날의 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통한 다음 세대로 흘러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어 본 논문을 연구하게 되었다.

연구의 목적(Purpose)

본 논문의 목적은 예배의 정의와 목적,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예배를 살펴보고 함께 한국교회 19세기 초대한국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예배의 변천을 고찰하여, 주일방교회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식을 정리하여 바람직하고 미래지향적인 다음세대가 드려야 할 예배의 방향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의 목표(Goals)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면 다음과 같은 목표가 성취될 것이다.

첫째, 예배의 정의와 목적을 알게 된다.

둘째, 성경신학적 구약과 신약의 예배의 모습을 알게 된다.

셋째, 한국교회에 초대교회부터 시대의 흐름 가운데 커다란 변화의 예배 모습을 이해하게 된다.

넷째, 주일방교회의 평신도의 예배 의식을 알게 된다.

다섯째, 예배의 실천적 관점에서 본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가 주는 교훈을 알게 된다.

여섯째, 주일방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연구의 중요성(Significance)

본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영역으로 중요한 의미를 둔다.

첫째, 예배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경과 역사와 현실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둘째, 예배에 있어서 역사와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각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다음세대의 예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실제적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평신도의 의식을 진단함으로 올바른 교회의 일꾼이요 예배자로 세워야하는 평신도의 훈련에 있어서 목회의 방향성을 정하는데 좋은 지침을 줄 것이다.

연구의 중심과제(Central Research Issue)

본 논문의 중심과제는 주일방교회 평신도의 예배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 것이고, 현재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진정한 영적예배가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질문들(Research Questions)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목회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둘째, 목회의 중심인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성경신학적 신구약의 예배는 어떤 모습이며,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넷째, 주일방교회 평신도들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다섯째, 실천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배의 영성이 온전히 실천될 때 교회가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

여섯째,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방향을 위한 제안은 무엇인가?

연구의 범위(Delimitations)

본 연구는 다음의 범위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주일방교회의 다음세대를 위한 예배의 방향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일방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예배의 정의와 목적을 어원적, 신학적 정의로 구분하여 살피고, 예배의 목적을 살펴본 후 신구약 예배와 한국교회 역사의 흐름에서 보여주는 시대별 예배의 변천을 중심 범위로 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주열방교회 안의 평신도의 의식을 서베이를 통해 조사하고 분석하며,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예배의 사례를 성공으로 인한 선한 영향력과 실패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으로 구분되는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넷째, 논문의 배경과 기준이 되는 주열방교회가 지역교회로써 앞으로 성장이 필요한 교회임을 감안하여 현재의 사역을 비롯해 앞으로 다음세대에서 일어나길 기대하는 소망으로 내다보는 사역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Methodology)

본 연구는 위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연구 방법들을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성경의 예배와 한국교회의 예배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연구로는 개인 소장 도서들과 풀러신학교, 월드미션대학교 도서관의 소장 도서와 학술논문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둘째, 실제 경험적 관찰의 방법이다. 논자는 논문에서 언급하고 조사된 일산신성교회에서 7년, 영진교회에서 4년 6개월 부목사로 과거에 논의된 현장의 중심에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하였다. 그 현장 한가운데서 경험하고 체험한 경험과 관찰내용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셋째, 설문조사의 방법이다. 주열방교회의 담임목사로 있으면서 평신도의 예배 의식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 평신도의 의식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목회하고 이는 평신도의 의식에 대한 이해와 예배드림의 현실을 진단함으로써 실제적인 적용을 염두에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 개관(Overview of the Study)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예배의 정의와 목적으로 사용된 원어를 4가지 언어, 한자,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의 의미와 하나님이 정하시고 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제3장에서는 예배의 역사를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여 연구하였고, 제4장에서는 한국교회에서 드러진 예배를 시대적 변천을 19세기 한국 초대교회의 예배를 시작으로 2000년대까지의 예배를 고찰하고, 제5장에서는 주일방교회 평신도의 예배 의식을 서베이를 통해 조사하여 4가지로 예배와의 관계로 구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실천신학의 관점에서 긍정적 및 부정적 사례를 일산신성교회와 영진교회의 실제 사역을 토대로 비교하였고, 제7장에서는 앞서 고찰하고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 세대에서 드러야 할 진정한 영적예배의 방향을 주일방교회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제8장은 결론으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결론을 내리며 논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제 2 장

예배의 정의와 목적

논자가 평신도들에 대한 예배의 이해를 논하기에 앞서 우선되는 것이 예배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예배의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되어야 한다. 예배의 정의는 어원적, 신학적으로 구분하여 살피고, 예배의 목적을 논하고자 한다.

예배의 정의

예배의 정의를 먼저 어원적 정의와 신학적 정의로 구분한다. 어원적 정의는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헬라어, 번역 성경의 원어적인 영어와 독일어에서 정의를 살펴볼 것이다.

예배의 언어적 정의

한자적 정의

한자로 예배(禮拜)의 예(禮)는 “예도, 예절, 경의를 표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 배(拜)는 “절, 절하다, 감사하다”의 뜻이 합하여 “예를 다하여 절하다”의 의미를 가진다(정일웅 1998:23).

‘예를 갖추어 절한다’는 말의 최고의 예를 다한다는 의미는 나라의 왕, 임금을 향해서 절을 올릴 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예를 다하여 절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한자적 정의를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세상의 최고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드러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 천지 만물의 주재(主宰)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에 맞는 최고의 예를 다하여 절하는 예배가 정해진 장소와 시간 뿐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삶에서 드러져야 할 것이다.

구약적 언어 정의 - 히브리어 정의

구약성경에 사용된 ‘예배’의 원어는 아바드(עבד;abad)란 단어로 표현되었다. 본 뜻은 ‘봉사하다’, ‘섬기다’ 라는 뜻이다. 사무엘하 15장에는 압살롬의 반역이 나온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윗의 곁을 공식적으로 떠나려고 할 때 사용하였다. 사무엘하 15:8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만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에서 아바드는 섬김(하나님을 향한 예배)이라는 분명한 단어로 사용되었다. 즉, 헤브론에서 섬기기로(예배)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갈 수 있도록 다윗에게 허락을 강권적으로 구하는 상황 속에서 나타난 단어가 아바드(עבד;abad)이며, 이후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곧 스스로 왕이 되는 반역을 일으킨다. 다윗은 아들의 반역 소식을 듣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자가 된다. 이렇듯 다윗은 아바드(עבד;abad) 앞에서 피해를 당할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예배자 였다.

다른 원어로는 샤하(שח;Shaha)란 단어이다. 그 뜻은 ‘굴복하다’, ‘복종하다’, ‘자신을 엎드리다’, ‘숭배하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다(정일웅 1998:23).

어휘 속에 나타나는 뜻에 대해서 정장복총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주성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며 섬겨야 할 존재라는 사실과 경배와 복종의 생활이 예배자들의 주요한 삶의 근본이다”(정장복 1999:9)

신약적 언어 정의 - 헬라어 정의

신약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3종류가 사용되었다. 먼저 ‘프로스큐네오’(προσκυνέω)이다. ‘절하다’, ‘경배하다’(요 4:22-24), ‘엎드리다’, ‘입맞추다’, ‘굴복하다’, ‘복종하다’란 뜻을 가지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가리켜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정일웅 1998:23). 이 의미는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존경의 표시로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엎드린다”(마 4:11)라고 풀이할 수 있다. 또 유대교에서는 이 단어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나 혹은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와 관련되어 사용하기도 했으나 신약성서에서는 신성한 대상에만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한다(키틀, 프리드리히 1985:1056).

두번째 단어는 ‘레이투르기아’(λειτουργία)이다. 이 단어는 예전(禮典)을 가리켜 사용된 것으로 보는데, 이 말은 원래 ‘레이토스’(λείτος)와 ‘에르곤’(έργον)이란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희랍에서는 국가와 백성의 유익을 위하여 희생 봉사한 일 또는 신을 위하여 헌신한 일 등을 가리켜 ‘레이투르기아’로 불렀다고 한다(정일웅 1998:23).

세 번째는 ‘라트레이아’(λατρεία)이다. “보상을 위한 봉사”, 또는 “신들을 섬김”(히 9:6)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12:1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용된 ‘라트레이아’는 내, 외적인 생활과 행위로의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다(키틀, 프리드리히 1985:570-572).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고 하였다(밀른 2017:445).

이는 예배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것임을 의미한다. 드림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재능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과 뜻과 정성 물질에 있어서까지 다 드리는 것이다. 예물은 제사 가운데 드려진 후에 산채로 돌아갈 수 없음을 기억할 때 예배 가운데 나온 예배자들이 자신의 것을 드리고 난 후 남겨서 돌아간다는 것은 온전한 예배자로 드러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헬라이어적 어원에 의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앞에서 엎드리며, 섬기고 봉사하는데 남김없이 죽기까지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배’라고 하겠다.

영어권 및 독일어권 언어 정의

예배의 영어단어는 “Worship”이다. Worship은 본래 앵글로 색슨어의 “Weorthscipe”에서 유래 했는데 이것은 가치(Worth)라는 말과 신분(Ship)이라는 말의 합성어이다. 이 말의 뜻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이다(레이몬드 아바 1974:9). 탐 크라우터는 ‘예배’(Worship)란 단어를 문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예배’(Worship)란 단어는 타동사이기에 목적어가 필요하다. 밥 코플린은 예배를 ‘던지다’(throw)라는 단어에 비유했다. 던지려면 대상(목적)이 필요하다. 무엇을 던지는지 말이다. ‘야구공을 던지다’, ‘돌을던진다’와 같은 문장처럼 목적어가 꼭 있어야 한다. 무엇을(누구를) 예배하는가? 주 여호와를 예배해야 한다.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어야 한다. (탐 크라우터 2014:24)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과 가치를 돌린다는 예배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으나, 영어권이나 독일어권에서 공히 인식하고 있는 분명한 예배의 개념적 이해는 ‘봉사적 개념’을 더욱 중요하게 부여함으로 서비스(service)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God's service" 또 "Worship - service"란 표현을 쓴다.

독일어로 예배란 단어는 일, 섬김, 사역(Dienst)의 의미와 연관시킨다. 독일어의 예배란 단어의 정의는 하나님의 예(Gottesdienst), 또는 하나님을 위한 봉사(Dienst für Gott), 그리고 이웃에 대한 봉사(Dienst am Nächsten)을 포함하여 기독교 예배의 개념과 본질을 더 깊게 이해하게 해 준다고 하겠다(정일웅 1998:24).

이 말의 뜻을 좀 더 구체화 시키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to ascribe to Him supreme Worth)”이란 뜻이 된다.

예배는 존경과 존귀를 받을 만한 최고의 가치를 지니신 하나님께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예배의 신학적 정의

개혁신학의 대표인 칼빈은 무엇보다도 더 예배의 신학적 견실성(堅實性)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예배의 행위나 부대적인 것들에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려 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경에 “너희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의 2번째 말씀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교회 안에 예배와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모든 예술작품들을 다 제거 할 만큼 칼빈은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원리를 분명하게 적용하였다. 그래서 칼빈이 가지고 있는 원리 중 하나가 신학적 명료성이다. 즉, 예배는 신학적으로 틀림이 없을 뿐 아니라 이해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예배를 전인격적인 행위로 보았다(리스 2001:209-210).

이상을 통해 예배의 목적도 신학적 정의가 필요로 함을 알게 된다. 다음은 어원적 정의에 이어 신학적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자.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예배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야한다. 인간은 말할 것도 없이 사물이나 자연이나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유는 하나님은 참으로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피조물의 편에서 찾아가 맺은 언약이 아니라 절대 알수 없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예배를 요구하셨고, 그 예배를 통한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흠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가진다. 이 조건은 하나님이 정하여 알려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기에 우리의 능력 밖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누구나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겠다’ 하며 도움을 구할 때, 하고자 했으나 자신이 주인되어 못지킬 때 조차도 반드시 도와주고 건져주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한다. 하나님 한분 만을 예배하여야 한다.

예수님도 삶의 모든 부분이 예배로 시작하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공생애의 사역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분이다(요 14:10).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마지막 숨을 거두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셨다(요한복음 19:30-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대제자장이요(히 4:14), 선지자요, 왕으로 살아가셨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그리스도는 이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으로 재림하기까지 드려야 할 예배의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셨다.

기독교적 의미의 예배

예배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지만 마치 주인공처럼 인식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했다. 그렇지만 결코 주인공의 길을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임시적으로 주인공을 대신하여 주인공의 자리에서 대신 일을 한 경우일찌라도 실제 주인공이 왔을 때 그 자리를 내어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쉽지 않은 일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미 처음부터 공공연히 그것을 선포했다(마 3:11). 그리고 예수그리스도가 실제 등장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예배의 주인공임을 선포하고 세상의 중심으로 선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하고 세례요한 자신의 모습은 사라져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요 3:30).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신은 밑바닥으로 낮아지는 것이 예배이다.

예배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나는 당신보다 못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당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맥도널드 2015:169)

세상에서 주인공처럼 살고 있는 현대의 성도들은 분명히 기독교적 예배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이 땅의 어디에서도 사람은 주인공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와 예배의 자리에서 주인공인 것이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는 말씀은 인간의 죄성과 더불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추어 보면 온전한 예배, 열납되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게 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나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임하여야 한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도와 주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예배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예배의 형식이나 의식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하나님의 가시적인 역사를 똑똑하게 목도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는 필요한 것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목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조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성령의 조명 하심은 말씀과 성례를 통해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역의 증표로 이해했고,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임하여 오시는 성령에로의 참여가 진정한 예배인 것이다(정일웅 1998:119).

지금까지 예배의 정의를 어원적으로, 신학적으로 살펴 보았다. 예배는 하나님을 왕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복종, 존경과 희생으로 항복함으로 드려야 하는 행위이며, 오직 하나님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야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예배의 목적

첫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과 온전히 만난다는 의미는 일대일의 만남으로 동급의 위치로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과 일대일의 만남은 항복(surrender)의 자세로 만나는 것이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항복하며 신을 벗었다(출 3:5).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주권적 명령과 하나님의 통치에 항복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는 자신의 주권과 생각을 포기하고, 예배자의 온전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만남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 첫 번째 예배의 목적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자 안에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어두움이 떠나가는

것이다. 거짓이 사라지고 사단의 권세가 멸하여지는 것이다. 연약함이 강함이 되고, 병들이 치료되고, 쓰러짐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분열이 하나 됨의 길을 찾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근심과 걱정이 다 떠나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 승리하는 것이다. 즉 예배 드리는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세 번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다. 이를 깨닫고 경험하며 확신하는 자리가 예배이다.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 하심은 우리를 위한 첫 부활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네 번째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 경외란 공포심이 아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싫거나 벗어나고픈 두려움이 아니다. 존경심이 가득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 우리의 삶과 죽음, 과거 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함으로 경외하는 것이 예배이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을 통해 예배의 목적을 보여준다. 독자 이삭을 제단 위에 주저함 없이 올려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보여준 아브라함의 경외심은 하나님도 인정하셨다. 제단 위에서 경외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경외하기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이다.

다섯 번째 예배의 목적은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레위기서는 제사장들의 제사용 매뉴얼만이 아니다.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열납 하시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쓰여져 있는 것이 레위기이다.

HOW 주식 구약시리즈 레위기에서는 레위의 규례들 가운데 다수는 평신도가 어떤 제사를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2007:49).

속죄제는 자유의사를 따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누구든지 -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건, 공동체 전체건, 지도자건, 아니면 공동체의 평범한 구성원이건 간에 -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하는 제사다. 중략 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의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한 기본적인 선행조건이다. (두란노 HOW 주식 구약시리즈3 레위기 2007:136)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의 필수적인 선행 조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됨을 자복함으로 죄 용서를 받는 예배자에게 십자가를 통해 화목제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화목의 길을 열어 주셨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롬 3:25) 화목제물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

여섯 번째 예배의 목적은 참된 만족과 변화를 얻게 하는데 있다. 세상에서는 무엇으로도 우리 안에 만족을 채울 수 없다. 시편 84편의 저자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고라의 자손들로(민 16:1),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어 반역을 주도하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땅 속에 물이는 저주를(민 26:9-10) 받은 인물의 후손이다. 그러나 비록 시인의 조상들은 반역을 했었지만 후손들은 변화되어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건된 후손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자로 살아감에 참된 만족을 누리는 자손들이 되었다. 시편 84: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됨과 만족함을 예배를 통해 경험한 것이다. 고라의 후손이 반역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되어 드린 시편으로 인해 세상 만족이 아닌 하늘의 참된 만족을 얻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요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음이 예배드림인 것을 실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 임재 안에서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의 비전을,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민족의 인도자로 부름을,

사무엘은 성전에서 선지자의 부름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목양의 비전을, 바울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서 엎드려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실 세계선교 비전을 받았다. 다 언급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사용하셨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삶의 목적을 발견한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학업과 다른 여러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발견한다. 특히 지역교회 예배를 통해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시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통해 그 뜻을 성취해 가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포하고 그것을 예배자들을 통해 이뤄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어 예배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는 어둠의 근심과 연약함, 심지어 질병까지도 떠나가는 승리를 경험하게 한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경험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통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고 의지할 때 참된 만족과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임을 살펴보았다.

제 3 장

예배의 역사

예배는 성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지 판단하신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 증거들을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구약에서의 예배, 신약에서의 예배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약의 예배

하나님께서서는 예배에 있어서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제사)를 위한 목적으로 레위기를 쓰셨다. 레위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고,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레위기 외에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예배에 대한 말씀들의 증거가 있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약의 예배는 공적이며, 회중적인 예배였다. 따라서 구약의 예배를 성경신학적 관점으로 예배 장소, 예배 시간, 예배의 내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예배의 장소

하나님은 무소부재(無所不在)이신 분이다. 즉, 때와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그 존재와 섭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임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표현 중에는 ‘하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한다. 하나님은 주로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 하늘에

계신다. 창세기 11:5(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출애굽기 19:11(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열왕기상 8:27(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외에도 많은 말씀이 하늘에 계심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원하셨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장소를 정하시고, 그 장소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그곳에 오셔서 예배를 받으셨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장소’를 위해서 마콴(makom; מקום)이란 단어를 특별히 사용하셨다. 쿰(kum; קום)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어떤 물건이 있거나 있어야만 하는 구체적인 지명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나왔다(해리스, 글리슨, 윌트케 1991:991). 그 앞에 ך를 접두어로 사용하여 예배의 장소를 가리킬 때 전문적으로 사용하였다(스코비 2017:612). 이제 구약 역사의 시대적 구분에 따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족장시대

아브라함부터 야곱, 요셉에 이르는 족장시대는 약속의 땅에 자리하며 근거를 두고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완전한 정착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생활 했을지라도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애굽행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 전부가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들어가 땅을 얻었고, 지낸 기간이 430년이 흘렀을때는 자력으로서는 절대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형편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애굽땅에서 대우받는 외인으로 시작했다가 긴 시간에 의해 구박받는 노예로 지내게 되었고 그들의 예배의 장소는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 불특정 지역이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에 이은 광야 40년의 시기는 움직이는 장소에서 예배가 드러졌다. 성막이 바로 예배의 장소인 것이다. 예배의 장소인 성막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제작부터 이동과 정착의 모든 상황을 지시했고, 성막의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지시하셨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하셨다(출 29:43). 성막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정복 전쟁이 끝나 성전으로 대체 되기까지 예배의 장소였다. 그후 실로와 기브온으로 이동했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으로 그 기구와 속한 것들이 이동하였다(스코비 2017:614).

약속의 땅에서 정착시대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여러장소(마쿰:מקום)에서 예배하게 된다. 초기 족장들의 역사와 연관되어 예배의 장소가 언급되었으며, 실로에 세워진 장막은 사사시대까지 이르렀고,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인 사무엘의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

왕정시대 - 예루살렘 성전시대

성전건축에 있어서 다윗은 어느누구보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누구보다 크고 간절한 이 소망을 거절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소망이 유산이 되어 솔로몬에게 전해졌다. 이를 통해 성전 건축을 비롯한 예배에 있어서 사람이 주도적이고 중심되고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 예배는 절대 하나님의 것이고, 인간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도적인 지시에 의해 솔로몬이 성전이 건축할 곳은 모리아산이었다(대하 3: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와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의 예배와 관련이 있는 곳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 지시하신 곳이 모리아산이며 그곳에서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다. 이처럼 하나님이 번제를 지시하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받치도록 한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은 족장시대의 예배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장소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스코비 2017:616).

멸망과 포로 이후 시대

성전의 파괴는 예배의 종말이라고 여겨질 것 같았어도 이는 다시 포로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욱 가지게 했고, 귀환을 통해 무너진 성전에 대한 복구와 더불어 예배의 회복을 소망하게 했다. 그리고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에스라의 의한 포로 귀환과 더불어 일어난 성전회복과 재건은 키웠고 진행되었다. 이에 예루살렘 성전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회복의 역사는 이 땅에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였다.

예배의 날(일자와 절기)

이제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의 회중이 지켰던 예배날과 절기 중에 드린 예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날(日)

구약의 예배(제사)하는 때는 분명 안식일이다. 십계명에서 준엄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보내라고 확실하게 명령하고 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20장, 신명기 5장에 자세하게 강조되어 있다. 거룩하게 예배자가 되어 보내야 하는 예배의 날은 천지창조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심히 좋아더라 선포하시며 제7일은 안식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십계명으로 이어가셔서 6일은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말고 오직 하나님과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다. 창조질서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때로 정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여야 한다.

절기

매 주일 돌아오는 예배의 날 뿐 아니라 구약의 예배에 있어서는 절기(레 23:2)가 있었고 민족적 회개로 보내는 성일인 대속죄일(레 23:27-28)이 있다.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는 장자의 재앙을 넘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스런 마음으로 지키는 유월절과 40년 광야 생활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매일 일하지 않아도 맛나를 주셔서 하나님의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며, 추위와 바람과 햇빛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초막절(장막절)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의 첫 수확을 먹게 하심에 감격하며 드리며 지키는 맥추절(칠칠절, 오순절)이다.

이 모든 것의 의미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구원과 지켜주심과 돌보아 주심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그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다.

예배의 내용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정하신 장소와 예배의 날과 절기의 예배를 구약을 배경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사

제사는 구약예배의 가장 큰 특징이다(스코비 2017:627). 구약의 예배(제사)를 다음의 표에 정리하였다.

<표 1>

구약의 예배(제사)

제사	성경본문	구약의 의미
번제	레 1:3-17; 6:8-13	번제단의 불로 완전히 태워 드리는 것으로 제단 위의 제물이 조금이라도 남겨지지 않고 전부 태워져 드려져야 하는 의미
소제	레 12:1-16; 6:14-23	날마다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의미
화목제	레 3:1-17, 7:11-34	범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사람편에서가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의지와 계획하심 가지고 의도적인 하나됨을 이루고자 하시는 의지가 담긴 의미
속죄제	레 4:1-5:13; 6:11-34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기엔 지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씻음을 허락하신 의미
속건제	레 5:14~6:7; 7:1-10	속죄제와 같은 의미이지만 대상이 물건이고 주변이다. 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과 물건과 주변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되어야 함을 의미

기도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와 간구를 제사장에 의해 내용을 드린다기 보다는 형식에 의해서 기도하는 예배였다.

개인의 기도는 대략 찬양으로 표현되었고 자복하고 참회하는 기도로 시편 51편을 대표적으로 많은 시편들이 기록되었으며, 국가적 위기 앞에 하나님을 향한 중보의 기도(대표적 인물이 모세, 출 32:32) 신원의 기도, 감사의 고백 등이 예배 가운데 기도였다.

찬양

구약의 찬양은 오케스트라와 같이 할 수 있는한 모든 악기와 소리내는 도구를 사용하여 기쁨과 감사와 높임으로 드렸다. 시편 150:1-6을 보면, 노래로 찬양과 몸으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을 비롯해, 나팔로 찬양,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 소고치며, 현악과 통소로 큰 소리나는 제금으로 높은 소리나는 제금으로 찬양한다고 나온다. 찬양은 구약이든 신약의 예배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며 찬양해야 하는 것이다

쉐마(말씀)

신명기 6:4-6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이 선포되는 말씀이 시작된다. 특히 율법책(느 8:1-3)이 낭독되고 개인별 가정별 암송의 범위가 정해지고, 반복적인 메시아 임재를 소망하는 대망사상으로 말씀 앞에 서는 봉독하고 듣는 것이 예배였다. 후에 이스라엘이 망하여 포로가 된 포로시대에는 해석으로 이루어지는 회당 예배가 있기도 하였다.

이상 구약의 예배에 대해 살펴보았고 다음 장에서는 신약의 예배에 대해 살펴보겠다.

신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공생애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과 승천 재림에 이르기까지 단 하나도 예외없이 신약의 예배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신약의 예배를 예수님의 구속사건을 통하여 예배의 장소, 때와 내용으로 구분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예배의 장소

성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개의 율법도 폐하지지 않았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구약의 율법과 유대전통을 붙잡고 있던 당시 대제사장과 그 부류들과 율법학자, 바리새인과 열심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흠잡고 고소하고자 했으나, 예수님은 결코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도리어 미완성이자, 그림자와 같은 퍼즐의 한조각을 맞추어 완성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 완성의 조각과도 같이 드러지심으로 완성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성전을 비롯해 율법들에 대해서 구약의 연속성을 이어가셨다. 누가복음 기사로서 예수님의 어릴적 성전 토론 기사(눅 2:22-29)는 성전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인 뜻과 계획 가운데 세우신 예배의 장소(마침)임을 확실하게 인정하셨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그 본래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으로 전심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제물을 가지고 나오던 본래 구약의 예배는 사라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셨다. 오용하고 함부로 취급하는 자들을 향하여 무서운 책망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지정하신 장소인 성전의 분명한 의미를 선포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예배)하는 집이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만이라는 유한성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과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곳은 성전과 같은 예배하는 장소의 확장을 이루셨다.

교회

“성경(신약)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공동체, 곧 교회가 새성전이라고 선언한다”(스코비 2017:637).

성전이라는 장소의 범위가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장된 것이 신약의 예배의 특징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에 일반적으로 국한되어 있었다(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을 비롯해 나라의 국경을 벗어난 지역에 이르기까지 퍼져있었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다). 그 제한적이었던 예배의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의 몸으로 확장된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전 3:17) ‘너희’라는 것은 고린도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경건하고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으로 성전과

연과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의 예배를 논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예배 받으실 장소를 지정하시는 주도권을 행사하신다고 언급하였다. 고린도후서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에서 하나님께 지정 받은 바 곧 하나님이 지정하여주시는 예배의 장소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몸으로 확장됨을 분명히 하였다. 우리의 몸이 성령이 내주하시며 예배의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곳으로 변화된 것이다.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와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연합을 이루어 예배자와 예배의 장소로 삶에서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그리고 성막에서 솔로몬 이후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임재하셨다. 그곳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흠향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이땅에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인 새 공동체와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예배가 가능한 것이 되었다”(스코비 201:638).

회당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다. 초대 교회의 초창기의 예배는 회당에서 드러졌다. 사도바울은 선교 여행으로 가는 곳마다 한 가지 원칙을 세워놓았는데 그것은 회당을 거점으로 개척을 하는 것이었다(스코비 2017:640). 이 원칙을 따라서 행함으로 교회가 회당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회당에서부터 예배가 드러졌다. 유대인의 디아스포라로 인해 세워진 수많은 회당들을 보면서 사도바울은 그것이 신약에서의 주도적인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라고 믿고 초기 선교의 교회 개척의 거점이자 신약의 예배 처소가 되었다.

가정

성전에서부터 흩어진 각 지역과 나라에 있는 회당으로 확장된 예배의 장소는 점점 지역에 살고 있는 가정으로 확대되고 더욱 세분화 되어갔다. 이런 확장이 가능했던 것은 예배가 이제 더 이상 지정학적인 규정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고백은 예배드리는 장소의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움을 허락했다. 그리고 매일의 삶의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것은 더욱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이어졌다. 이미 가정을 통한 예배는 예수님과도 함께 하였던 것이다. 삭개오의 집(눅 19:5), 세리장의 집(마 9:10), 나사로의 집(요 11:2), 베드로 장모의 집(마 8:14), 최후의 만찬장(마 26:18-19), 오순절의 다락방(행 2:1),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행 12:12) 등이 그 증거가 되겠다. 이 가정은 로마의 핍박 속에서부터 유럽과 아시아로 전해지는 전도의 과정에서도 계속 모임의 장소가 되었다. 사도행전은 이를 증거하는데 마리아, 브리스길라, 고텔료의 집 등 가정교회는 신약의 예배 장소로 보편적인 곳이 되어갔다.

예배의 날

안식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안식일에 예배하는 시기가 주의 날, 주일로 예배하는 시기로 옮겨짐의 의미도 있다. 십자가 처형의 죄명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에 대한 고소장에 언급된 무리를 일으키는 선동자가 아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권력을 탐하고 회개하기를 꺼려하는 지도자 계층인 대제사장 및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이기주의적 고발에 의한 잘못된 판결이었다. 그러나 그 잘못은 참된 안식일의 출발선이 되었다. 예수님은 안식일 폐지의 선동자가 아니라 참된 안식일을 알리는 선구자였다. 마가복음 2:27에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고 하며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셨다.

십자가의 사건과 죽으심은 참된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문이 되었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심은 주의 날, 주께서 승리하신 영광스런 날이 되었다. 사망권세가 끊어지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시작된 안식 후 첫날, 즉 주의 날, 주일은 안식일의 온전함이 기념되는 날이기에 이날 예배함이 자연스런 모임이 되었고, 그 모든 역사를 우리를 사랑하사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높이고 선포하는 예배가 드러지게 되었다.

절기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어릴 적 기사와 공생애 기간의 행적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도 절기와 율법의 범위 안에서 성장하셨고 움직이셨다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이 말이 율법과 절기가 예수님을 속박하거나 제약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절기와 율법 이외 여러 가지 규례와 조건들이 거울을 보는 듯한 의미요, 그림자의 의미였던 것을 완전한 것으로 이루셨기에 유대 절기의 완성인 것이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어린양의 피로 구원함을 입은 역사에 대한 기억함이요, 감사의 절기였으나 예수그리스도의 흠 없고 영원한 유월절 어린양의 십자가 피흘림으로 더 이상의 동물의 피가 요구되는 유월절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신약의 교회의 예배에서 더 이상 절기의 예배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스코비 2017:642).

신약의 예배에 대해서 성경은 예배에 장소는 제외하고서라도 형식이나 때에 많은 정보를 주지 않는다. 물론 주일을 주의 날이었던 것은 사도행전 20:7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증거한다. 또 매일 예배를 초대교회 공동체가 드렸다는 것은 사도행전 2: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을 통해 알게 된다.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우리 신앙의 최고의 승리인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나 오순절의 성령강림을 기념하는 예배에 대한 증거는 없다. 예수님과의 만찬을 통한 애찬은 고린도전서 11:23-28을 통해

초기교회 예배에 큰 특징의 모습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신약의 예배에 강조점은 성령충만과 사랑의 실천과 헌신이였다(새성경사전 2012:1274).

예배의 내용

제사

히브리서 9장을 통하여 증거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히 9:12). 흠 없고 완전한 번제물로 드려짐을 통한 구약 예배(제사)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어떠한 동물의 피의 제사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중단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과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고 믿음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드러지는 예배가 되었다.

기도

신약의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힘쓴 것이 기도이다(행 2:42,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 강림의 역사를 강하게 경험하는 신약의 예배가 되었다. 특히 오순절 이후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시간이고, 그영향은 오늘날의 시대로 선순환의 영향력으로 이어졌다. 한국교회의 기도원 운동과 은사 중심의 사고, 특히 방언 기도에 대한 간절함은 시대적인 배경이 크게 작용을 했지만, 신약의 예배, 특히 초대 교회의 강력한 기도에 힘씀에서 충분히 기인했다고 할 수 있다.

찬송

에베소서 5: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신약 예배공동체가 함께 진행했던 중요한 예배의 요소 중 하나이다(스코비 2017:646).

말씀

말씀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다. 하나는 성경봉독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의 낭독이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오늘 날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설교 안에는 빠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공생애의 기사(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심)와 기적 행하심, 고난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승천, 특히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내용으로 다시 오시는 재림과 종말론적인 내용의 설교가 선포 되었고, 교회적 문제 또는 구제와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들도 선포되었다.

성만찬

중요한 신약의 예배 내용이다. 고린도전서 10:16-21, 11:23-26에 고린도교회에서 행하여 지는 성찬찬에 대해서 자세히 알수 있다. 예수가 잡하시기 전 날 제자들과 나누는 만찬을 기억하며 초대교회는 이것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였다. 신약의 예배의 내용으로 초기성만찬은 예배 회중 전체가 나누는 식사에 포함된 애찬도 포함해서 같이 지켜졌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묵상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심을 깨닫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행위이다. 예수님도 이를 기념하라고 하였고, 성만찬을 통해 계속적인 임재를 소망하고, 같은 뜻과 같은 마음을 소유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연합과 참된 교제를 나누며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상으로 구약에서의 예배를 살펴 본 바 시대적 변화는 있었지만 성전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셨음을 알수 있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와 내용과 시기와 절기의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 있어서 예배의 주체가 되시며 주도적이며 예배 받으심에 있어서 적극적이셨음을 알 수 있다. 구약의 성전 중심의 예배는 곧 신약에 있어서 성전의 실체와 예배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있다.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배의 완성이며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신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제 4 장

한국 교회의 예배

자생적 복음의 터전이요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와 헌신과 자생적인 복음화의 뿌리 가운데 한국교회가 세워진 후 지금까지 예배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후에도 영원토록 드려질 것은 예배이다. 따라서 한국교회 안에 진정한 영적예배에 대한 제언을 위해서는 한국교회 안에 드려지는 예배를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의 예배의 유형과 예배의 흐름을 19세기 한국 초대교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교회 예배의 유형(장로교회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유형은 선교초기부터 형성되어 지켜진 전토예배 유형과 사회적 변화와 필요에 의해서 대상자들에 맞게 맞춤 변화된 새 시대 유형, 두 가지가 있다.

전통 예배의 유형

특징

설교중심적인 예배유형이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평신도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였다(박용규 2001:112). 그러나 점점 목회자 중심이 되어갔는데 그 주된 원인은 점차적으로 예배 인도 하는 것과 강론을 맡아 설교하는 것이 한사람의 몫으로 변화되어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배가 변화되는 동안 목사의 주된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설교가 중심에 서게 되었다. 따라서

성도들의 생각과 고정관념에 설교중심의 예배가 자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설교가 예배의 모든 것이 앞에 서게 되었고 이 밖에 중요한 예배의 요소들이 거의 대부분 설교에 종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설교중심이란 설교만이 중요하고 그 외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보조적 역할이란 의미가 절대 아니다. 물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이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하시는 것으로 여겨 경건한 마음과 다짐의 마음으로 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그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 성도로서 예배드림에 모든 도리를 다 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설교중심의 예배란 설교를 통해 선포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주일 예배 뿐 아니라 주중에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전인격적인 삶의 부분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설교가 삶이 되는 건강한 생활을 다짐하는 것이 설교 중심 예배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다.

목회자 중심

1920년대 말의 예배는 평신도들이 오늘날 드러지는 예배보다 더 많은 예배의 참여가 있었다고 한다(박용규 2001:112). 그러나 점점 더 목사 중심의 준비와 예배 인도되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목사가 목양을 통해 성경적인 예배의 모습을 교육함으로 평신도들의 다양한 예배 참여가 자리를 잡기도 전에 목사의 지위와 순서와 맡은 바 행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설교자 중심이 되어 감에 따라 신학 공부를 마친 목사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커지게 되었다.

70~80년도 대규모 부흥집회와 기도운동으로 인해 급성장하는 교회가 많아졌다. 기도원 운동을 중심으로 지교회마다 부흥회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로 초청되기 시작했다. 기도원강사, 부흥사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섬김과 낮아짐보다는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영적권위를 내세우면서 중세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과

다를 바 없는 목사의 권리가 세워지게 되면서 더욱 목사 중심의 교회, 목사 중심으로 드러지는 예배가 되었다.

얼마전부터 목회자와 교회 안에 우상화되어 버린 듯한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들을 훈련하고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여 평신도와 동역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목회자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낮은 자리로,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더욱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목사 담임)의 고(故) 옥한음 목사의 평신도를 깨우는 제자훈련, 리더를 세우는 사역훈련을 통해 평신도의 위치와 역할이 크게 성장하게 되었다. 목회자 중심의 예배가 구도자 중심의 열린예배로, 설교와 더불어 찬양과 기도가 많아진 경배와찬양 예배 등도 많이 드러지고 있기는 하지만 목양을 담당하는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전통예배 유형의 특징인 것이다.

정리하자면 바람직한 전통예배의 모습은 목회자 중심도 아니요 평신도들 만의 것도 아니고, 조화를 이룬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점

전통예배 유형의 관점으로 볼 때 지금의 예배가 보여주는 단점으로 성찬의 의미가 저하되며, 성만찬의 횟수가 점점더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다. 초대 교회 및 중세와 그 이후에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매우 귀중한 예배의 내용이었다.

흔히들 종교개혁을 하며 성찬을 중심에서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정일웅 1998:332)로 두면서 차츰 말씀 위주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고 오해를 한다. 즉, 종교개혁 정신이 성찬을 연2회로 축소하고, 의미를 형식화해서 모양만 가지게 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오해 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루터, 칼빈, 쾰링글리 와 같은 개혁자들은 여전히 성찬이 주는 의미와 감동을 사모하였고 교회의 예배 가운데 지켜갈 것을 제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전해 받은 한국교회의 전통예배는 대부분 성찬은 횟수나 방식에 있어서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은 무엇일까? 첫째는 시간의 문제이다. 현대인의 뻘뻘한 생활과 분, 초를 다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향이 ‘빨리 빨리’로 변화되고 있음과 동시에 어느 시점부터인가 고정관념으로 “주일 낮 예배 시간은 1시간이다” 라는 것이 생겼다. 고정화된 1시간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계를 보며 예배를 보고 있게 되는 것이다. 솔직히 이런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논자는 대형교회가 큰 몫을 하였다고 본다. 대형교회의 예배는 예배 장소의 부족으로 주일 예배 시간을 1시간 조금 긴 시간의 간격으로 정하여 드린다. 그러다 보니 다음 예배를 위한 정해진 시간이 예배 시간으로 자리잡다 보니 고정화 되었기때 대형교회의 영향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두 번째는 성찬의 은혜에 대해 메말라 있는 목회적 현실이 더욱 성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예배에 있어서 성찬의 횟수를 축소시켰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성찬을 통해 기념되고 다시금 감사의 고백의 자리로 나가는 선순환적 작용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악영향으로 하찮게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개혁자 쾰링은 교회에 1년에 최소 4번의 성찬을 꼭 지키라고 당부하였다(정일웅 1998:333)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것을 1년에 2번으로 축소하여 지키고 있다. 그것마저도 애찬으로 대신하려는 움직임도 많다. 즉, 1년에 한 번 수련회를 통해서만 근근이 지켜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애찬식으로 변형되어 특별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거나 1년에 1번 또는 2번의 횟수로 축소된 성만찬의 예식이 말씀 중심의 예배와 더불어 예배의 중심에 다시 세워야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새시대 유형

전통적인 유형은 시대적 변화와 같이하며 새로운 예배 유형이 등장하였다. 예배를 드리는 구성원들의 특별한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예배당이라는 지역적 환경을 확장시키는 유형의 모임이요 예배가 세워졌다. 몇가지의 예를 소개한다.

신우회 예배

신우회는 직장서의 복음 선교란 이름으로 시작되었다(정일웅 1998:337). 주일은 개인적으로 섬기는 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현장이란 사명을 가지고 직장에서 신앙의 동료들과 직장내 주위의 불신자와 특히 직장내에서 본이 되는 삶을 위해서 정기적인 모임의 예배이다.

신우회 예배는 직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주일 교회에서의 예배 보다는 구성과 순서, 특히 말씀에 있어서 설교를 듣기 보다는 Q.T(경건의 시간)을 통한 나눔과 성경공부 위주로 구성되어 진다.

학원선교 예배

신우회와 비슷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는 모임 가운데 드리는 예배이다. 이 예배는 기독교(mission school)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특정한 종교를 재단으로 한 학교 외에는 학원 복음화의 목표 아래에 소규모로 많은 학교와 학원에서 자리를 잡아간 유형의 예배이다. 이 학원선교 예배도 주일예배의 유형과는 다른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신실한 교사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예배이다. 더욱이 이 학원선교 유형의 예배는 신앙을 지도할 뿐 아니라 진로와 진학에 이르는 특수한 나눔도 기대할 수 있고, 지역교회의 교회학교와 연계할 하여 신앙의 성숙과 유지하기에 좋은 예배 유형이다. 더 나아가 교육자의 직업을 가진 잘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가 모임을 인도하며 헌신한다면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의 예배이다.

특수공동체 예배(정일웅 1998:336)

특수한 환경과 목적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안에 생성된 예배의 유형이다. 대표적인 유형이 군인교회이다. 직업군인이든 징집군인이든 군인 이라는 공통 울타리 안에서 계급과 남성 중심으로의 드러지는 예배이다. 신병교육대 교회, 사단교회를 비롯해 군인 자대별로 군인교회가 전통교회의 예배와 비슷한 내용과 형식과 예배조직으로 드러지고

있으며, 군인이란 좀 폐쇄적이긴 하지만 집중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의 공동체 예배의 유형이다.

한국교회의 예배를 전통적인 유형과 새시대의 유형으로 고찰을 통해 설교중심의 예배 와 더불어 성만찬예식이 예배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이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환경과 특수한 목적의 필요에 의해서 직장과 학교의 신우회, 특수적 상황에 따른 필요에 따라 예배의 유형 등이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교회 예배의 흐름(19세기~2000년대)

논자는 한국교회의 토양에서 태어났고(거듭남), 한국교회의 교육속에서 자랐고, 한국교회 안에서 양육되어, 한국교회의 울타리에서 목사가 되었다. 논자의 교회의 성도들도 모두 동일한 환경에서 시기적 차이는 있을지라도 환경과 한국교회의 역사적 배경은 동일하다. 또한 우리의 다음세대로 동일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초기부터 지금까지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논의가 아닐 수 없다.

충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인 박용규교수는 오늘의 한국교회는 심각한 위기라고 확신하며, 그 위기를 예배의 변천과 깊은 관계성이 있다고 보았다(박용규 2012:111). 오늘을 살며 내일을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는 위기를 벗어나 안정과 발전을 향해 걸어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숙제일 것이다.

이에 초기 한국교회가 발행한 주보와 여러 문서를 추적 연구한 논문인 박용규의 *한국교회 예배의 변천, 역사적 고찰* 을 중심으로 간략한 한국교회 예배의 변천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 예배의 모습을 시대의 흐름별로 예배 시간과 그 시대의 특징을 간략하게 시대별 표로 정리 하였다(박용규 2012:111-175).

세기 한국 초대교회의 예배

<표 2>

19세기 선교 초 교회 예배

19세기 선교 초 파송선교사들의 예배	
주일대예배	- 주일 오후 2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 기독교 개종자 대상 - 초기 예배의 모습은 통일성이 없다. - 1885년 10월11일 한국 최초의 성찬식 거행 - 1886년 4월 25일 조선땅에서 베푼 최초의 개신교 세례식 - 헌금순서를 제외 함으로 초기 가난한 한국인을 배려함

<표 3>

1890년~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 이전까지 예배

1890년 ~ 1907년 이전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7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일대예배가 세 차례 드려지기 시작함 - 최소 2번 이상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요구되어짐 - 이는 소래교회의 기록을 통해 확인됨 - 이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도 지속됨

1900년대 이후 평양대부흥의 한국교회 예배

<표 4>

1906년~1920년대의 한국교회 예배

1906년 ~ 1920년대	
주일대예배	오전 10시, 오후 3시
주일저녁예배	저녁 7시 또는 8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이 일어남 - 세번의 예배 중 한번은 성경공부, 한번은 예배형태, 한번은 전도집회 형식을 드림 - 주일성수에 대한 강조(필수의무) - 새벽기도가 소중한 정기 집회로 정착됨

주일성수를 비롯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6가지 의무를 Minutes of the Korea Mission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3), 62-63에서 박용규교수가 인용한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번째는 주일 성수이다. 주일에는 세상일을 하지 않고 예배 참석, 병자와 주변을 돌아보는 것 외 소풍등은 금지하였다. 두번째는 음주이다. 치료수단 이외에 어떤 종류의 술도 금지했다. 제조하는 것도, 판매하는 것도 금지할 뿐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 제조 또는 판매하는일을 중단할 것을 권하도록 했다. 세 번째는 결혼이다. 불신자와의 결혼을 삼가하게 했으며 딸을 팔거나 신부를 돈주고 사는것도 금지했고, 18살에 되기 전에 남자와 16세이전 여자의 결혼을 금지 했다. 네 번째는 노름과 마작이다. 단호하게 모든 노름과 마작을 금지했다. 다섯 번째는 흡연이다. 흡연도 금지했고, 등록하지 않은 교우에게 있어서도 흡연을 자제시켰다. 마지막으로 노비를 소유하는 문제였다. 노비 소유는 금지 뿐 아니라 노비제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현재 노비를 소유하고 있다면 다 해방해야 하며, 과부의 인신매매는 용서받은 수 없는 죄악으로 규정했다. 그런 일을 하는 교인은 권징에 넘겨져 채결을 받게 하였다(박용규 2012:124-125).

1920년대 후반에서 해방전의 한국교회 예배

<표 5>

1920년~해방전 한국교회 예배

1920년 ~ 해방 전	
주일낮예배	오전10시 또는 11시 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7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대 중반부터 교회에서 주보를 발행을 통해 20년대까지는 교회마다 용어의 사용이 통일되지 않았음을 발견한다. - 주일에 오전과 저녁 2번의 형태로 변천됨 - 1930년 초가 지나면 용어가 현대적으로 변화되고 오전예배, 오후예배로 구분, 삼일기도회가 8시 드려지기 시작함 - 설교를 성경해석과 강도라고 표현함 - 세례와 성찬이 설교 후 진행됨 - 금식과 감사가 강조되어 예배순서에 명시됨 - 권징이 실시되고 있음 - 지금보다 더 평신도들의 예배 참여가 활발한 시대였음 - 1938년 9월 27차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한 후 신사참배가 요구되며 주일에 교회 차원의 천황숭배가 실시 되어 예배가 심각하게 변질됨

해방후 한국교회의 예배

<표 6>

1950년~1960년 한국교회 예배

1950년 ~ 1960년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저녁예배	오후 7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일에 2번 오전과 저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정착 - 주일 오전예배를 중시하는 경향이 시작됨 - 주일오전예배가 오전 11시로 정착됨 - 예배에 교독문과 사도신경의 고백이 보편화 됨 - 찬양으로 통일 했으나 성가대라는 일체의 흔적이 남겨지게 됨 - 무언 사회가 교회예배 가운데 도입되기 시작함 - 교회적으로 부흥회가 점점 중심이 되어감 - 담임목사가 사회와 설교를 비롯해 예배인도자로 예배를 주관하기 시작함

1960년대 후반부터 목사 단독의 예배인도는 목사로써 전문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으나 부흥회라고 하는 절대적인 영권을 강조하는 시대적 예배의 흐름과 맞물려 목사의 권위주의가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도 나타나게 되었다. 예배가 역동적이고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러지는 것에서 구경꾼을 양성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래서 ‘예배보러 간다’ 라는 예배에 대한 잘못되어진 보편적 표현이 생기게 되었다. 1930년에 평신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드러지는 예배가 더욱 집중되어 변천이 되었다면 한국교회에 놀라운 영향력을 주었을 것이다.

<표 7>

1970년 ~ 1980년 한국교회 예배

1970년 ~ 1980년	
주일낮예배	1부, 2부, 3부, 4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라운 부흥, 급속 성장을 경험함 - <1973년 빌리그래함 서울전도대회, 1974년 엑스포로, 74년 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1980년 세계복음화대성회> - 경제발전과 맞물려 물량주의가 한구교회 안에 침투함 - 산업화 과정으로 더욱 주일예배 기피 현상이 일어남 - 대형교회를 시작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아닌 기획된 예배를 시도하게 됨 - 찬송이 많아지기 시작함 - 점점 교수 통계와 헌금 통계에 대한 공개를 꺼려하게 됨 - 참회의 기도가 예배 순서에 들어옴

이상의 변화는 오늘날 예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즉 쇼인가? 예배인가? 자성의 소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의 원인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교회의 물질과 교세의 거품의 문제들 등 교회 갱신을 해야하는 모습들, 목사의 권위 상승으로 우상화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신도와 목사의 사이가 확연하게 벌어지는 일이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된다. 물량주의와 시나리오가 있는 예배, 열린예배 및 경배와찬양의 모양만을 갖춘 예배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리를 잡아가는 시작임을 발견하게 된다.

<표 8>

1990년이후 한국교회 예배

1990년~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예배 중심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오후 3시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일 저녁예배가 저녁 7시, 8시에서 오후 2시, 3시로 옮겨지는데 2000년대 이르러서는 일반화되었다. - 지나치게 교회가 외형(건물, 주보 등)에 집중하게 됨 - 대형교회에 국한된 것이지만 주일 교세 통계와 헌금통계가 사라짐 -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주보가 전도지의 형태로 변화되기 시작함 - 영상도입과 CCM이 있는 열린예배가 도입되어 한국교회에 큰 유행으로 번져 도시 교회 대부분이 오후예배를 열린예배 또는 찬양예배 스타일로 드리게 됨 - 기존의 예배의 전통과 경건과 경건한 모습의 지향이 없어지게 됨 - 총동원 전도 및 불신자 초청의 구도자 예배가 일어나 외형적 교세증가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남 - 수평이동이란 현상이 두드러지게 됨 - 예배가 말씀 중심에서 감성 중심의 예배로 전환됨

논자의 교회도 현 오후 2시에 오후예배를 드리고 있다. 1950년대 이후 주일 2번 낮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로 자리잡으면서 한가지 병폐가 생긴 듯하다. 그것은 주일 성수에 대한 것으로 주일 낮예배는 성령 충만으로 드러지는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오후예배를 맞이하는 자세는 예배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닌 의무감에 드러지는

예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형상은 교회가 힘이 없게 하였고, 너무도 쉽게 성도들이 세상에서 타협하는 삶을 살도록 방관하게 하였다. 그래서 오후예배는 식사후 주일성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출석체크를 위한 예배로 전락이 되는 리스크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예배의 역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주도적인 인도하심에 우리들은 순종과 복종으로 따라가함이 계속 교육되고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이후의 한국교회의 변천에 대해서 박용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예배를 통해 영적 재충전을 받고 이단 세력에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할 때 주일 성수 개념이 약화되고 주일예배가 역동성을 잃은 것이다. 주일성수개념의 약화, 주일예배의 변천으로 역동성과 생명력을 잃은 한국교회는 과거 사회와 민족을 선도했던 모습과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졌다. 그 결과 이 후 한국교회는 눈에 띄게 하향 길로 접어들었다. (박용규 2012:164)

이상 19세기 초부터 오늘의 한국예배를 살펴본 논자는 중세시대 교회에 개혁이 필요했던 것과 같이 개혁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임을 확신하게 된다.

개혁주의 교회의 특징에서도 언급했지만 필요한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강단이 감성과 오감을 자극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더불어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같이 예배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은혜로 덧입을 수 있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말씀이 후손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때 어두운 사사시대가 펼쳐졌던 성경역사의 교훈을 거울 삼아 다음 세대에 말씀 중심,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예배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함을 확신하게 된다.

한국교회 예배 변천의 고찰을 통한 과제

19세기 초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예배로부터 2000년대 이후의 예배까지의 흐름을 보았다. 외국 선교사의 전폭적인 선교가 있기 전에 먼저 자생적 교회의 기틀을 마련한

한국교회는 선교역사에서 ‘20세기 선교의 기적’으로 불리우며(이덕주 2007:9) 및 세계 교회사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한국교회사 흐름에 나타난 교회예배의 흐름이 주는 분명한 것은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절대적인 목적이다. 이 목적은 하나님과 예배자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목적이 아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조의 목적부터가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만남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며 교제하였던 아담과 타락전 삶의 모습이 마지막 재림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된 모습의 그림자요 예표인 것이다. 지금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예루살렘 성의 재림 이후는 말할 것 없는 영원한 즐거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예배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예배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임재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온전한 회복은 재림 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 진다)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영유간 변화를 통해서 발견 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됨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예배는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의사소통하였고, 깊은 교제와 더불어 진실된 소통을 해 주셨다(창세기 2:15-25). 그러나 이 소통은 인간의 범죄로 깨졌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없어졌다. 그러나 깨어짐과 단절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첫 가죽옷을 시작으로 짐승의 피로 드러지는 제사, 그리고 하나님 성소 안에 지성소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찢으시기까지 소통의 길을 회복시키셨다. 그 회복된 소통의 길이 바로 예배인 것이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의 고백의 장소요 시간이다. 이 고백의 장소이자 시간은 주일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 사랑하는 사이의 연인은 보고 또 봐도 더 보고 싶은 것이요, 오랜 시간 같이 있어도 더 같이 있고 싶은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과 진실된 소통이 있고 사랑하는 예배는 특정한 공간과 시간에 얽매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얽매어 있는 예배, 제한되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다. 즉, 바람직한 하나님과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온전한 삶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정일웅 1998:341). 삶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한국교회 예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 중심의 예배이다. “그것은 단순히 설교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순서의 전체가 말씀을 나타내며, 말씀과 대화하며, 말씀에 응답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점이다”(1998:341).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말씀 중심(설교를 포함)의 예배가 되었고 앞으로도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즉 한국교회의 초대 역사를 살펴보면 외국선교사가 들어와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고, 이 나라 글로 성경을 번역되게 하심으로 복음이 우리 언어와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 이를 ‘토착화’라고 하며 한국교회의 역사와 예배의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언어로 표현하며 출발되었던 것이다(이덕주 2007:6).

말씀 중심의 예배 형태에 있어서 렌지(E, Lange)가 제시하는 예배유형 3단계를 정일웅은 *기독교예배학개론*에서 인용하고 있다. 말씀중심 예배의 기본적 구조는 사면의 부분, 언약의 성취부분, 세상으로 파송의 부분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했다(정일웅 1998:41).

‘사면의 부분’은 참회의 기도, 자복함과 죄용서의 확신, 은혜의 선포를 예배 앞에서 드림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형성하고, 진실된 화목의 관계를 위한 예배의 시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언약의 성취부분’이란 예수그리스도의 선포이다. 즉, 언약의 성취요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구원의 말씀, 언약의 성취가 확실하게 성취되었음이 중심되는 부분이다. 최초 아담의 타락이후 여인의 발꿈치와 뱀의 머리로 시작된 원시복음(창 3:15)인 인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은 예배자에게 있어서 언제나 확인되어야 하고 확신되어야 할 복음이다. 이 부분을 예배에서는 성시교독과 성경봉독, 그리고 설교의 형식을 통해서 진행된다(1998:342).

세 번째 ‘세상으로 파송의 부분’(1998:342)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와 약속, 삶의 과제를 통해 도전하고, 날마다 동행 하심을 인지하게 하여 온전한 예배자의 헌신과 결심을 가지고 예배당을 떠났어도 계속되는 삶의 예배가 세워지는 세상으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이는 예배당에 들어올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들어오는 입구에 그 짐을 다 내려 놓았다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날 때는 내려 놓았던 짐을 다시 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짐이 없이 맨 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마태복음 11:28-30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워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서 넉넉하게 살아가라는 뜻이다. 따라서 예배 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나라의 온전한 쉼을 맛보며, 세상에서 짊어져야 할 짐이 질적으로 달라졌음을,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 예배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논자가 동의하는 정일웅의 회복되어야 할 제안으로 한국교회 안에 성찬 예배의 은혜로운 정착이다(1998:342-343). 성찬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은 가르쳐지지 않은데서 나타난 무지한 영역이라 하겠다. 이 무지함은 성찬이 예배에 있어서 어색하거나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여겨지게 하였고, 바쁜 현대에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해서 교회마다 잦은 성찬예식은 기피하는 풍조가 생겨나게 했다. 앞서 예배의 역사에서 고찰했듯이 예배의 핵심 내용은 말씀과 성찬이었다. 이 역사적 사실을 한국교회의 강단이 가르치지 않았고, 1년에 최소 2번, 그리고 보통 4번 분기별로 성찬예식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자세히 보면 분기별로 하는 곳도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 1년에 6번 혹은 한달에 한번 12번의 성찬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정말 손꼽히는 교회 안에 들 것이다. 그나마 연 2회 또는 4회의 성찬 예배를 드린다고 할 지라도 주일 예배의 시간적

한계와 예배 순서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그 의미와 처음 교회역사에 있었던 감동과 감격이 시간에 쫓기어 나타나지 못하는 현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부정적이고 제한적 요인이 있을지라도 성찬과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서로 조화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평신도들의 예배 의식에도 자리 잡도록 목회적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 예배 안에 예배를 흔드는 어떠한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성찬과 말씀이 조화된 건강하고 균형잡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열납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예배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신구약의 예배, 역사적 흐름과 예배의 변천 그리고 한국교회의 유형을 비롯해 한국교회의 흐름을 살폈다.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하여 논자가 섬기는 주열방교회를 중심으로 평신도의 예배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 5 장

평신도의 예배에 대한 의식 (주열방교회를 중심으로)

논자는 구체적인 영적 예배의 제언을 위해서 논자가 지난 5년동안 담임목회를 하였던 주열방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에 대한 평신도들의 예배 의식을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11가지 항목으로 조사하였고, 이것을 “예배의 의미와 목적”, “예배를 통해 본 평신도들의 영성”, “말씀을 대하는 평신도들의 영성”, “들은 말씀에 대한 실천”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예배의 의미와 목적

교회와 세상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하 표현이라고 한다)가 있다. 같지만 다른 의미와 쓰여지는 대상이 전혀 다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이든 불신자든 타종교인든 같이 공유하며 사용하는데 어색함이 없는 표현들이 있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행복, 기쁨 등등일 것이다.

반면 함께 사용하기에는 절대 어색하거나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십자가, 부활, 재림, 또 주일 등이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 삶에서 표현되고 사용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각각의 표현들이 주는 의미에 대한 확신은 분명할 것이다.

이는 기독교가 가지는 구별되는 특징,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 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의 반복적인 윤회나 참선, 이 땅에서의 삶이 도덕적 선행과 최고의 선을 누리며 죽음 이후가 불분명한 상태로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이 사는 것으로는 절대 이해 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성육신과 십자가의 고난, 부활 그리고 재림이라는 분명한 진리를 믿는 기독교이기에 믿음이 없으면 절대 고백되어지지 않는 표현이 있다. 타의든 자의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이든, 강권에 의한 것이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이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계속 되는 생활, 즉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 의탁함,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자라남 등을 향해 달음질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달음박질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예배로부터 시작되고, 예배 가운데 일어나며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끝이며 전부인 것이다. 너무 익숙해 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앞에서 매우 어려워한다. 어려움 속에서 즉답을 주저하거나 나름대로의 여러 다양한 대답들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인지 21세기 북 아메리카에서 많은 논쟁의 주제였을 뿐 아니라(던 2017:12)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의 진지한 고민이고, 알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가 ‘예배’인 것이다.

혹자는 “정해진 공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경말씀과 말씀 준비한 성직자에 의해 설교를 듣는 것이 예배다”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지정된 공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적인 행위가 예배다” 라고 개념을 정리한다.

이러한 개념 정리가 틀린 것인 아니지만 자칫 잘못하면 습관화와 종교의식화로 빠져들게 하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 습관화가 되고 종교의식화가 된 것은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행동과 언어로 표현된다. 소위 ‘영혼 없는 대답’과 같이 영혼과 감동이 배제된 형식적인 예배 행위들과 절대 볼 수 없고 깨달아 알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사모함이 사라져 버리고, 충만한 경험과 채워짐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진 타성에 젖은 자리매김 등은 습관과 의식화되어 버린 우리들에게 무서운 질병과 같은 것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다. 이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며, 전적으로 예배를 인도할 뿐 아니라 준비됨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인 목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예배에 대한 물음과 그에 대한 대답은 평신도들에게 기본적인 것
아니라 중요한 것이다.

예배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담은 질문을 주열방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예상대로 다양한 표현들로 이해하고 생각 하고 있었다. 먼저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예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은 없지만 일맥상통한 의미들로 중복이
많은 순서로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었다.

먼저 예배는 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며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무엇을 드린다는
것일까? ‘신령과 진정’ ‘찬양’ ‘경배’ ‘감사’ ‘정성’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하였다.
개역한글성경 요한복음 4:23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개역개정성경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것이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미치도록
하여, 성령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토록 해야 하며, 확고한 사상과 열정적인
사랑으로써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전부로써 그에게 예배하여야 한다.

성령은 때때로 부패한 “육”에 반대되는 새로운 본성을 나타낸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에게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그에게 예배한다는 것이다”(헨리 1982:198).

또한 ‘진정’으로 드린다는 것은 “진실됨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이다. 이중적인
마음이나 겉과 속이 다른 마음, 흔들리는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 중 한가지가 아닌 시편
51:6 말씀과 같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중심의 진실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마음 중심으로 반응하며 진실되게 그것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예배 가운데 자신의 뜻과 생각과 원하는 것을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자리로만 그쳐서는 안되는 것이다.

간혹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위함 보다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굳은 결심, 자신의 원함을 단순히 요구하고자 나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며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나아와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많은 것들을 고백하고, 약속된 시간 되었다는 이유를 대고 서둘러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지 모른다. 물론 어려움과 고난, 갑작스러운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을 만나게 되면 그것의 해결과 피난처와 안식처인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령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깨달음에 진실된 반응으로 나타내야 한다.

찬양은 노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노래와는 완전히 다르다. 노래의 장르가 있다. 팝, 트로트 클래식 재즈 등등 여러 장르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을 무분별하게 찬양이라고 하지 않는다. 물론 모든 것은 찬양으로 사용 될 수 있다.

과거 한국의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예배의 도구로 피아노만을 고집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고집이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의해서 깨어졌고 그리고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모든 음악적 장르와 도구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눈을 떴다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 사용되고 울려 퍼진다고 해서 전부 찬양이라고도 할 수 없다. 찬양시간, 찬송 시간, 특히 요즘은 경배와 찬양이라는 형식과 순서가 대세이다 보니 먼저 찬양이 많이 사용되고 요구 되어진다. 그러나 그 찬양에 주인이신 하나님이 없다면 드러지는 대상이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가사와 작곡 작사가 처음부터 예배에 사용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 대중가요와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이 다일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인정하고 선포한다면 그것은 찬양이고 그것을 드릴 때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나타내는 것이 찬양이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고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또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어려움과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기적으로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드러내는 음악이 찬양인 것이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다. 시편 50:23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성도들 중에는 년초에 항상 1년의 목표로 감사 노트를 적겠다고 결심하는 분들이 있다. 년 초가 아니더라도 종종 계기가 있을 때 감사 노트를 써보면 어떻겠냐고 권면하기도 한다. 그 감사 노트를 통해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적혀진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이어나간다. 그리고 영광은 또 다른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인도한다. 더불어 감사는 전염성이 강하다. 한 성도가 감사를 통해 영광 돌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힘든 상황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을 보면서 보는 분들도 동일한 감사로 말미암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퍼져나감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감사는 예배의 확장을 이루는 촉매제와 같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정성’ 중요한 표현이며 단어이다. “지성이면 감천”, 즉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으로, 무슨 일에도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리어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다. 그래서 예배는 즉흥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시나리오 또는 cue sheet 등 꽤 오래전부터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면서 보편적인 cue sheet는 주보일 것이다. 주보를 통해 정해진 순서에 의해 차근차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또한 성도들도 주보를 통해 시간 시간 순서 순서 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반응하여 자신이 드러짐을 위해 정성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시나리오 또는 cue sheet 또는 주보등이 성령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성령하나님은 교통하신다. 따라서 예배가 정성스럽게 준비되고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것이라고 할 때 너무 지극 정성을 기울여서 그것 자체에 움메여지는 경우가 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지극정성을 다한 사람의 뜻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항상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명심해야 한다. 준비된 것 이외에 대한 뜻하지 않은 반응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에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순서지나 혹은 cue sheet, 시나리오 등 그 자체에 몰두하다 보면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그것을 드리는 자의 입장에 서서 오히려 자신이 감사와 만족을 누리려는 모습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다양한 대답이 나왔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통(소통)하는 것”, “하나님과의 소통과 만남”, “하나님과 교제” 등이다.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키워드가 ‘소통’과 ‘교제’이었다.

이는 먼저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배 드릴 때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확실한 존재의식이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열납되고 받아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열납하고 받으신 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십중팔구 실패하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통해 소통과 교제가 일어난다. 이러한 교제와 소통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다(고린도전서 1:9).

이상과 같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로 ‘감사’ 함으로, ‘온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예배의 의미와 목적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기초하고 있다.

주열방교회 평신도들은 대부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험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가를 의심할 여지가 없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이다. 주열방교회 평신도들은 표현을 이렇게 한다. “부족하지만 역사하심을 느낀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전율을 느낀다”, “찬양중에, 기도중에, 말씀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반면 경험하지 못한다는 고백도 있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마음의 찢림과 감동으로 느낀다. 그러나 교만과 자아가 나를 지배할 때는 느끼지 못한다”, “때로는 마음의 삭막함으로 인해 아주 가끔 아무런 반응을 느끼지 못해 힘들때도

있다”고 하였다. 임재를 경험하고 못하고는 개인적인 마음의 준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때론 자신의 부족함-무엇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부족한지는 표현되지 않았다-을 고백하면서도 그런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임재(역사)하여 주심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변함 없이 있지만 못 느끼는 경우에 있어서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하나님의 임재는 확실히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

그러나 그 임재를 느껴야 하는 당사자의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인해 못 느끼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이유로는 자신의 교만과 자아가 우선시 되는 경우, 어떠한 이유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때때로 마음의 삭막함 때문에 아무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이 힘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고백한다. ‘때로는’이라는 표현이 함축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일상 생활에서 얻게 되는 스트레스와 실직과 같은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변 상황으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좌절, 더불어 원치않는 질병과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 등일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경우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느낀다 라고 대부분 얘기하고 있다. 특히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한다. 준비라 함은 닫힌 마음의 문, 세상에서 살면서 죄로 찢들어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역할에 더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준비된 심령에 말씀이 선포될 때 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느끼는 경험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고백으로 “교만과 자아가 나를 지배할 때”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고백은 죄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가장 심각한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느끼는 경우는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라고 대부분의 응답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이라는 고백을 한다.

여기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느끼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즉, ‘준비된 마음’이다.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정리해 보면 자신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느낌은 준비됨으로 시작하여 찬양과 기도로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예배와 영성

주일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다양한 예배를 향한 참석의 이유를 통하여 평신도의 예배자로서 가지는 영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첫번째 주일 예배와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등 어떠한 예배이든지 간에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요, 평생의 숙제일 것이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에덴의 회복이요, 영광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이 시작되기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분명한 만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은 교만한 고백일 것이다. 알아가면 알수록, 그 깊고 높고 넓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더욱 더 알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인도할 것이고,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영성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주시는 사랑의 완성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하였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다.

만남은 서로를 알아가는 가장 좋은 통로이다. 영적 갈급함을 비롯해서 감격과 기쁨과 거룩함을 알아가는 것은 모두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예배를 통한

만남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경험도 제공할 것이다. 이는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다음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한 성도로써의 의무라고 대답하였다. 여기서 명령이요 의무라는 대답은 자원하는 마음이라기 보다 강압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대답의 원인으로는 한국교회 강단을 통한 기복적인 설교에 의한 것이다. 기복 신앙을 부추기는 설교가 이러한 신앙의 영성을 형성하게 하였다. 자원하는 심령 보다는 령과 복종, 의무에 의해서라도 신앙과 믿음을 유지해야 복을 받는다는 기복신앙이 주는 영성이 작용한 것이다.

또 다른 원인은 십계명을 통해서 이런 대답을 하였을 것이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으로 십계명 자체가 명령이고 지켜야 할 의무가 강력하게 포함되었기에 그 내용의 정확한 해석을 떠나서 십계명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의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엄중한 명령과 의무를 그대로 받아 들여 그 명령을 지켜야 하고 지키는 것에 의무감을 더하는 것이다. 네 번째 계명으로 인해 왜곡되었지만 이해와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되는 경향도 볼수 있다. 즉, 주일예배에 대한 참석의 이유에는 예배 참석이 명령이요 의무이다 라는 답변이 절반 이상이다. 그런데 수요일예배와 새벽예배, 기타 예배에 대한 참석의 이유에는 하나의 답변도 명령이나 의무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예배에 대한 명령과 의무를 주일에만 국한 시키는 십계명 중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완성되었기에 더욱 주일 낮예배에 집중하여 명령과 의무에 대한 반응의 답변들이 집중되게 한다.

그런데 주일예배는 의무, 명령이고 이외 다른 날의 예배는 옵션이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으로 비약되었기 때문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은 의무와 충성이라고 하는 귀한 영성을 성장시켜 주었지만 반대로 주중의 예배에 대해서는 목사나 또는 시간이 있어 가능한 사람만 드러지는 것이 되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예배에 대해서 주일 낮예배는 절대 빠져서는 안되는 예배이고 수요일을

비롯해 주중에 드러지는 예배는 경중을 따져서 드러도 되는 예배에 대한 차이를 두는 것은 잘못된 영성의 대표적인 것이 된다.

다음으로 주일예배와 수요일예배 새벽예배 기타예배 등 주일이든 주중이든 모두에게 나타나는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예배이든 주중에 있는 예배이든 참여를 통해 바라는 것들이 몇 가지 분류 할 수 있다. 먼저는 거듭나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기에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다. 또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새 힘과 지혜를 말씀이 얻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더불어 삶에 지치고 힘들어 할 때 선포되어짐으로 주일이든 주중이든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하고, 재충전 되어지고 자신을 향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배참석을 통해서 바라는 것은 예배에서 다하지 못한 아쉬움과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채움 받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배참석 이유로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하루의 마감을 통해 이를 수 있는 것을 깨달아 매일 매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 바람직한 소망인 것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어진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는 신앙고백인 것이다.

예배에 참석하는 또 다른 이유로 예배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며 갈급함 목마름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쉼과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고백하였다. 특히 시편 81:10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등을 통해 다양한 영성을 발견하게 된다. “주일 예배 이후 하루라도 더 예배하고자”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게 된다. “일주일 한번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진 영육의 힘, 위로를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함”, “주일예배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고백은 예배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하는 마음이 들어있다. 이는 주일 한 번 예배에 참석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예배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 행하였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며 고백이 되는 것이다.

주일 낮 예배는 힘써 참여하여야 하는 당연한 예배이고 수요일, 새벽 등 기타예배는 자신의 처한 환경과 입장에 상당히 관대한 처사를 내리고 있다.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통째서라면 주일 낮 예배이든 수요일 예배이든 새벽 예배이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배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에 대한 필요한 영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감당하여야 할 일들과 생업, 부득이한 생활 환경이 있다. 그러나 환경이 모든 것을 피해 가거나 면죄될 수 있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더욱 더 은혜를 사모하며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자 하는 열심을 품는 영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영성은 상황과 지역과 환경을 뛰어넘는 예배자로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의 영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먼저 능동적으로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는 주일예배가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은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자로 임한 사람들의 머리 위로 내린다고 생각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일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영육간의 유익이라는 동기 부여로 능동적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겠지만 부정적인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있기에 복을 받기 위해서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경우로 예배 참석 이유에 있어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경우이다.

두 번째는 주일에 한번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즉, 주일 날이라도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예배한다는 것이다. 소가족이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가족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소식을 챙긴다는 것에서는 좋지만 가족에 대해서는 소중한 마음이겠으나 상황에 따라 많이 유동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고 예배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볼 때 긍정적 못한 이유가 된다.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를 보면 자신의 유익에 관계해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 이유가 전체 의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자신을 돌아보며 위로받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거듭나기 위해서, 영혼의 쉼과 자유, 일주일 사회생활 중에 경험한 삶과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디로 가야하는지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등 자신의 유익과 관계된 이유들이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자신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정적 환경 속에서 있을 때는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계속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할지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예배에 수동적으로 참석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며 의무이기에 참석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준엄한 명령을 따라 참석하는 것은 참으로 존재론적으로 맞는 것이다. 의무이고 명령이지만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여 기쁨으로 의무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더해지기를 바란다. 나머지도 다 같은 맥락에서 수동적이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석한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한 예배의 의미와 목적에서 다루었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전적으로 전제하는데 그 만남을 위해서 참석한다는 것은 능동적이기도 하면서 긍정적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주일방교회 평신도들의 예배에 대한 영성은 바람직하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추어 살고자 하는 순종의 영성과 예배의 영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예배의 영이 충만하고, 세상적인 치료보다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위로와 새힘과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려는 결단의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왜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예배를 향한 성도들의 또 다른 영성이 드러난다.

먼저 예배를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기준이 흔들리면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 따라서 삶의 기준이 분명하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우선순위도 확실하다는 것이다.

“예배가 삶의 기준이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살고 있다는 고백으로 하나님 중심의 영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살아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인 숨을 쉰다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일주일의 성공의 시작, 한 주간의 출발점의 의미로 예배한다는 것이다. “예배가 이제 삶이고 호흡처럼 느껴집니다”라는 것은 예배가 숨쉬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고백일 것이다. 또한 살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살아있는 자는 숨을 쉰다.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의 표증이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호흡함과 같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도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써 살아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죽음의 시작은 마지막 숨을 쉬고 난 후부터이다.

하나님 중심이라 함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성도들의 원하는 바와 차이가 있을지라도, 삶의 기준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들 자신의 원하는 바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매번 예배를 드리며 발견하고 점검하는 하나님의 중심의 영성인 것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 사랑의 표현은 너무나도 놀라운 방식이었다.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가 불가능한 아가페의 사랑이다. 로마서 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큰 감격과 은혜와 긍휼이 포함된 사랑인 것이다.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반응하여 아가페 사랑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찬송가와 복음성가에 대한 선택에 있어서 찬송가가 예전부터 해왔던 전통이기에 쉽게 바뀌어 버릴 수 없는 것일지라도, 또 시대의 흐름에 따른 아무런 고민과 점점이 없이 주변의 유행을 쉽게 따라가는 영성은 아니었다. 찬양이 주는 의미와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하는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찬송가 이외에 복음성가 아마도 이 복음 성가 안에는 CCM이란 것도 다 포함하여 언급하였을 것이다. 복음성가란 단어도 요즘에는 찬송가란 단어가 가지는 ‘옛 것’이란 이미지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옛 것’ 또는 ‘새 것’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예배의 표현을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것이다. 성도들은 ‘시대의 흐름’ 또는 ‘인기’에 영합하는 선택도 물론 있었지만 또 그러한 선택을 ‘대세를 따라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는 분별력 있는 영성도 있다. “찬송가이든 복음성가이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굳이 구분이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찬양한다면 찬송가를 고집하는 건 율법적이라 생각한다,” “복음성가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의 본질이 심하게 왜곡되지 않는 경우 좋다고 본다” 이러한 답변은 분명 선택의 중심이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때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과 기준이 받는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옳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찬송가이든 복음성가이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향한 시점과 마음이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의 중심의 영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보여준다.

예배와 말씀

주열방교회 주일 예배는 일반적이지는 않다. 예배 내용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축교회의 예배 순서와 비교했을 때 일반적인 부분인 예배의 부름과, 묵도, 참회의 기도, 성시교독이 빠지고 부임 후 5년의 기간 동안 3번의 수정을 거치며 정착된 예배 순서로 예배를 드린다.

<표 9>

주열방교회 주일 예배 순서

경배와찬양	인도: 담임목사
통성기도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을 위한 기도
대표기도	말은이
신앙고백	문답식 신앙고백 <표2>
봉헌	예배 중 따로 헌금 시간이 없다
교회소식	친교 및 광고/ppt
성경봉독	설교 본문
성가대 찬양	찬양대
설교	담임목사<주제설교>
찬양	말씀과 연관된 찬양으로 삶의 적용과 결단
통성기도	만국기도
축도	담임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예배 순서와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담임목사의 목회 신념에 의해 중점으로 생각하는 경배와찬양, 문답식 신앙고백(표 2), 설교 및 만국기도와 통성기도의 예배순서가 특징을 이루고 있다.

<표 10>

문답식 신앙고백 - 사도신경

문/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문/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습니다.
문/ 성자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문 /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문 /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함 받는 것과,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열방교회 평신도를 대상으로 찬양과 기도, 설교와 봉헌에 대한 부분만을 따로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항목에 평가를 하였다. 그 평균 점수가 낮은 순으로는 봉헌, 기도, 찬양 그리고 설교가 10점 만점으로 조사되었다. 주열방교회의 성도들은 설교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10점 만점을 주었다.

<표 11>

평신도의 주일예배 요소의 중요도

예배순서	평균점수
찬양	9.56
기도	9.5
설교	10
봉헌	9.18

주일방교회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말씀이었다. 이는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증거이다. 즉 예배의 가장 중심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져 있다는 것이다.

부흥이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 핍박이 거세게 몰아치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의 삶은 곧 말씀의 삶이었다.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쫓대가 되어 기독교 핍박의 시절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게 하였다. 말씀이 모든 일상생활에서 성도들의 중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중심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나눔의 삶은 사도행전 2:46-47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의 말씀처럼 큰 부흥으로 이어졌고, 극심한 핍박과 환란, 디아스포라 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환경을 뛰어 넘어 견디고, 지나고,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누구나가 믿어야 하는 시대, 기독교 신앙이 의무적 믿음의 행위가 되는 시대가 되어서자 말씀이 성직자 계층의 전유물이 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특정 성직자들에 의해서 의도적인 왜곡으로 선포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본뜻과 상관 없이 오히려 왜곡된 의도와 욕심에 의해 이용되었던 시대가 중세시대이다. 하나님의 진의(眞義)와 뜻과 계획이 사리사욕으로 왜곡된 곳에서 종교개혁이 출발되었다. 이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목숨을 건 개혁이 일어남으로 교회가 다시 교회된 것이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의 시작이요 뿌리요 중심은 말씀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요소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백된다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예배에 대해 “하나님을 정성 바쳐 존경하며, 최고의 복을 받들어 하나님을 모시는 행동으로 찬양과 기도로 말씀을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통해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를 묻는 질문에 나타난 말씀에 대한 생각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는지 잘 드러난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임재하심을 느낀다,” “찬양중에, 기도중에, 말씀중에 성령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느낀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심이 느껴집니다.” 말씀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며, 예배에 있어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를 발견하게 한다.

주일 예배와 수요일예배 등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에서도 예배 가운데 말씀에 대한 평신도들의 생각을 잘 볼 수 있다. “나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받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이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순간 교만해지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집중하며, 말씀의(말씀이) 기준, 잣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를 통해서 말씀에 성도들이 붙들려 있어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대답들을 통해 주일방교회의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도 순위가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찬양 세 번째 기도 마지막은 봉헌으로 정해진 이유를 알 수가 있고, 평신도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의식 중 두드러지게 말씀 의존도가 높고 하나님 말씀에 의한 영향력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말씀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만 좋은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평신도들의 삶에 깊이 적용되어 생활 속에서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목양에 집중해야 할 필요도 알게 되었다.

종합해 보면 확실하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에 붙잡혀 있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주시는 도전과 권면에 반응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또한 강단을 책임지는 목회자도 설교를 통한 말씀 선포가 예배당 안에서만 심금을 울리는 메아리로 그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사업장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한알의 밀알과 같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썩어짐으로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실천적이고 적용을 위한 도전적인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주열방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만점을 준 것은 설교 외에도 목회의 중심에 말씀에 대한 강조가 있기 때문이다. 후임 목사로 부임한 후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목사가 매년 약속을 하며 반복적으로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다. 말씀을 읽는 것에는 3가지 중심되는 프로그램, 즉 평삼주요, 새벽예배 성경 3장통독, 매주 성경통신, 및 시편, 잠언 묵상의 생활화이다.

‘평삼주요’(신구약 성경을 평일에 3장, 주일은 5장씩 읽어 1년에 성경 1독) 새벽예배 성경 통독, 성경통신 등은 비단 주열방교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교회가 하고 있다. 그러나 이 4가지의 프로그램은 그것으로 인한 열매가 풍성하든 그렇지 못하든 주열방교회의 변함없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다.

초대 교회 예배의 중요한 틀인 회당예배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볼 때 토라와 시편과 선지서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예배였다. 정일웅은 *기독교예배학 개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정일웅 2000:37; 지용훈 2017:67 재인용)

‘쉐마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 로 시작되는 신명기 6:4~9, 그리고 11:13-21 민수기 15:37-41 등의 말씀 낭독으로 예배는 시작된다. 그리고 18개의 기도문과 테필라로 불리는 기도서로 만들어진 것을 예배에서 낭독한다. 그리고 회당의 세 번째 예배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선지자들의 예언서들이 낭독된다. 성경 낭독 후에는 이어서 그 말씀에 대한 설교가 진행된다. 그리고 민수기 6:23-24을 선포하는 것으로 축복의 서원으로써 예배는 끝난다’

예배사역자이자 예배컨설턴트인 탐 크라우터는 그의 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12가지 이유*에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 앞에서 일어난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 그는 여기서 느헤미야서 8:4-6의 말씀에 에스라를 통하여 율법책이 읽어질 때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에 붙들여 아멘으로 반응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증거하며 오늘날 말씀에 대한 교회와 성도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오늘날 우리의 반응과 얼마나 다른가? 오늘날 회중 앞에서 성경을 봉독할 때 그와 같은 열정적인 반응을 보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가치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이 개념은 거의 희석되어서 기록된 진리보다는 경험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훨씬 많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만큼이나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면서 성경책이 종이에 쓰여진 말씀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영과 혼과 골수까지 쫓개기 합당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간과할 때가 있다”고 하였다(크라우터, 2016; 68). 동감하는 부분이다. 그러기에 할 수 만 있다면 매일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고 깨우치시게끔 더욱 많은 기회 가운데 나가야 할 것이다.

예배와 실천

지금까지 주일방교회를 중심으로 평신도들 안에 있는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파악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와 영성을 분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에 붙들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대 가운데 흥왕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배당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 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되 에베소서 6:11-17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 다시 어두운 세상과 맛을 잃은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맛을 잃었고 썩어져 가는 세상에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진 지역과 각자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으로 실천적인 삶을 사고자 하는 욕구와 부르심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열방교회 예배가 어떤가를 묻는 질문을 통해 성도들은 깊은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아주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은혜로워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라는 성도들의 답변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새힘이 성도들에게 선순환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반응에 안심할 수 없다. 성도들은 세상에서부터 택하신 바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다시 무장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일과 주중의 예배를 통해 연약해진 영육이 회복을 경험해야 하고, 말라버린 심령에 은혜의 충만함으로의 채워짐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다.

주열방교회에 예배를 경험한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먼저는 말씀 공부에 대한 필요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음을 경험하였기에 말씀의 깊이로 더욱 들어가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필요일 것이다. 일대일 제자양육훈련과 제자훈련 등이 성경과노라마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둔 이유이기도 하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단에 빠져드는 경우를 조사해 보면 그 원인과 시작이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교회에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것을 교회적으로 풀어주지 못하거나 안했을 때 그 말씀의 갈급함의 빈틈을 이단들이 파고들어 성경공부를 핑계로, 목회자의 실수와 잘못을 비롯해 잘못되고 왜곡된 해석으로 인한 비성경적인 진리를 쏘아대며 한 영혼이 실족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는 항상 말씀의 자리가 풍성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넘쳐 흘러서 교회를 비롯해서 주변까지 풍족하게 마실 수 있게 하는 곳이 교회이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고 메말라 버린 곳이 되어가고 있다. 마치 하나님이 아모스 8:11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의 말씀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신 탄식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탄식이 되어버리는 듯하다. 따라서 이단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물론 세상의 갈급한 심령들이 갈증을 해결 하고자 할 때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교회는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소통하는 그룹이 있었으면 좋겠다”와 같은 소그룹에 대한 요구도 위와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혼자 살아가는데 오늘 날만큼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과 분위기가 높은 것은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더 하면 더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소그룹의 요구가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것이다. 소그룹을 통해서 희망하는 것은 소통이 있는 풍성한 나눔에 대한 기대일 것이다.

주열방교회 catchphrase가 있다.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는 사랑의 공동체” 라는 것이다. 함께 울 수 있는 소통과 함께 즐거워 할 수 있는 나눔은 소그룹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것이다. 그래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인 지체로 든든히 하나됨을 경험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다.

주열방교회 평신도들의 의식 속에 예배를 통해 교회 안에서 필요한 실천이 말씀 훈련과 소통과 나눔의 소그룹이 세워지는 것이라면 교회 밖을 향하여 실천되어야 할 필요는 전도와 봉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전도와 봉사에 대한 실천적 필요성은 교회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할 것이다. 전도에 대해서는 교회 성장만을 위해 해야만 하거나,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또 못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개척교회를 비롯해서 교세가 작은 교회가 적은 성도라고 하는 불리함을 핑계 삼아 멈추거나 시작하기를 주저해서는 안되는 것이 전도이다.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새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라는 생각에서 알수 있듯 전도는 교회의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이다.

주열방교회도 재정의 문제와 교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한다. 선교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확고했다. “교회는 선교해야 한다” 는 입장으로 처음부터 교회 선교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이 진행하였다.

지역 전도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전도는 은혜가 있을 때 그 마음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다. 받은 은혜가 있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순서이다. 따라서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가 은혜가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것으로 간주된다. 예배를 통해 구원이 선포되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드러나고, 그 뜻과 소원을 위해서 성도들을 불러 주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예배가 드러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목회는 이런 전도의 요구와 말씀을 통한 은혜의 도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요구가 있다는 것은 은혜를 덧입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목회가 집중 되어야 하고,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야 할 것이다.

복음에 대한 열정은 분명 전달되는 성향이 강하다. 작은 불꽃이 모아지면 큰불이 되고 쉽게 꺼지거나, 식어지지 않는 큰불이 되는 것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신 뜻이었다.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하여 한 영혼을 찾으셨고, 찾으신 영혼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셨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그 길을 우리들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명령을 하셨다. 성경적인 전도란 성도들의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전도는 삶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도의 강화를 위한 요구는 성도들의 삶을 강화하는 요구와 연결지어야 한다. 성도들의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통한 향기가 나아하는 것이다.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하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영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의 강화는 성도의 삶에 대한 강화라고 할 수 있으며 손해보고 남 잘되게 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이 전도의 실천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의 자세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볼 때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대한 실천적 요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는 되었지만 혼자만으로는 이웃을 섬기는 일들이 시간적, 인원적, 재정적 그리고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함께 감당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봉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교회적인 봉사가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가 지역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기회이며 좋은 교회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지역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 봉사를 교회가 나서서 감당하면 당장은 아닐지라도 뿌려진 봉사의 씨앗은 많은 영혼들의 추수로 돌아올 것이다.

일산에 위치한 일산신성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는 봉사활동을 통해 교회 이미지가 바뀌었고, 주변 타교회 성도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칭찬받는 교회, 가보고 싶은 교회로의 초석을 다졌을 뿐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

반면 대방동의 영진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는 교회 주변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주변 맞벌이 부부와 조부모 가정이 많은 것을 파악하고 지역을 섬기는 마음으로 방과 후 학교 시작하였다. 주일만 사용되었던 교육관을 개방하고 믿음의 여부를 떠나 매일 지역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자녀들이 돌보기 시작했다. 이로써 교회의 이미지와 소문은 매우 좋아지게 되었고, 믿지 않던 아이들의 부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역사도 일어났다. 그러나 담임목사가 바뀌고 교회 내부의 어려움과 교회 재정 적자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방과후 학교가 폐교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교회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나빠졌음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경우를 통해 얻는 중요한 교훈은 교회가 이웃을 위한 섬김의 봉사를 하려 한다면 이유와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끝까지 하려는 굳은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봉사하다가 중간에 멈춘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할 것이다.

이상 예배의 의의와 목적, 예배와 영성과 예배와 말씀, 그리고 예배와 실천까지 주열방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앞서 언급한 두 교회를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는 실천적 입장에서 본 예배의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6 장

실천적 관점에서 본 사례 고찰

이제 살펴 볼 일산신성교회와 영진교회의 실제 실천적 사례는 논자가 부교역자로 섬겼던 교회의 사례이다. 논자가 실무를 담당하였고, 그 경험 속에서 느낀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로 구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일산신성교회

일산신성교회는 경기도 일산 백석동 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누가 보기에든 참 교회가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아름답게 세워져있다. 이 교회는 1995년 3월에 백석동 지역에 개척한 이후로 일관되게 일산 동구지역의 백석동 지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칭찬 받으며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교회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를 교회의 5대 비전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자의 관점에서 다섯가지의 비전 가운데 사회봉사와 선교, 설교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외도 정병갑 담임목사의 낮은 자로서의 섬김과 나눔,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헌신적인 인품을 엿볼 수 있는 실제 목회 이야기도 살펴볼 것이다.

정병갑목사는 항상 인성을 중요시하는 목회자이다. 사람 중심의 목회(사람중심의 목회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양적 부흥만을 추구하는 목회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선한목자 되는 예수님과 같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위한 목회를 가리킨다)를 하는 목회자이다. 교회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람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간절한 희망과 의지는 한 명의 성도, 한 명의 차세대를 위한 마음을 담은 교회소개 글에서 잘 엿볼 수 있다(일산신성교회 홈페이지 www.isss.co.kr 교회소개).

“...우리의 꿈은, 상처받은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 좌절된 사람들, 갈등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 구제, 소망, 용서, 인도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 주변에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며, 삶의 참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일산의 수십 수만의 이웃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사랑하고, 배우며, 즐기며, 조화롭게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불신자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 중략 -

우리의 꿈은, 이 사회의 정치, 경제, 학문, 문화 등 수많은 분야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심을 수 있는 영성을 갖춘 리더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각 사람은 전 인격적으로-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돕기 위해 구성된 것입니다.”

또한 담임목회자의 자질 뿐 아니라 부교역자들과 동역에 있어서도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교세 확장의 측면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의미를 가지고 분리개척을 이루고 있다.

개척초기부터 물질과 인적 자원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나눠야 한다는 영성을 가지고 항상 지역과 성도와 목회자들과 나눔이 있는 목회를 하였다.

예배의 의미와 영성, 말씀과 실천의 사례로 일산신성교회의 5대 비전을 중심으로 소개 하고자 한다.

영광의 예배

일산신성교회의 특징적인 목회 중 하나가 예배이다. 지금은 주일 예배가 총 5번 드리는 중 마지막 예배가 오후 2시이지만 처음부터는 아니였다. 개척 초기에서부터 2008년 이후까지는 주일 저녁 7시 저녁예배로 마무리하는 교회였다. 그 당시에 주변 대부분의 교회가 주일 오후예배를 오후 시간대인 2~4시 사이에 마무리 하였지만 일산신성교회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지 않고 저녁 7시(동절기 오후7시30분)에 예배를 드렸다. 한 주간의 첫 시작인 주일 오전 낮 예배부터 주일 저녁예배까지 주일 하루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특화된 부분이었다.

예배에 있어서 영광의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시작하여 고백의 찬양과 항상 파송의 찬양으로 마무리 하였다. 특히 경배와 찬양팀의 적극적인 사역을 독려하여 주일 낮예배는 물론 모든 예배가 찬양을 많이 드렸다. 찬양에 관련된 사역들이 지금은 오케스트라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였다.

또다른 특징으로는 헌금부분이다. 이 부분은 개척부터 현재까지 헌금바구니를 돌리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고린도후서 9:5-7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에 있다.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예물은 자원하여 즐겨 드리는 것임이 성경적임을 분명한 목회 철학으로 삼은 담임목회자의 결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단순한 것 같지만 중요한 기준이고 그 기준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건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논자가 판단하는 가장 영향력 있고 특화된 예배의 부분은 설교이었다. 복음주의적 성경적 해석과 칼빈주의에 입각한 설교의 방향성을 항상 벗어나지 않고 지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를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다. 특히 설교의 내용에서 적용과 실천에 집중한다. 그리고 그것을 소그룹을 통해 나누고 확인하고 격려한다. 그래서 말씀이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끔 항상 인도하였다. 특히 사회적 이슈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연관 지어서 성경적 삶에 대한 결단과 실천을 촉구하는 설교를 하였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와 등록한 성도의 등록 결정의 이유로 80퍼센트 이상이 설교가 차지하였다. 또 한가지 정병갑목사의 설교에 있어서 두드러지는 것은 주일 낮 예배 설교는 가급적 초신자들에게 눈 높이를 맞추는 설교를

하였다. 새벽과 수요일예배, 그리고 금요일기도회는 일반성도와 중직자 수준으로 설교를 하였다. 그래서 불신자를 비롯해서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들도 주일 낮예배의 설교를 통해 많은 도전과 이해를 도왔다. 이러한 설교의 수준과 수위의 조절은 많은 효과를 거두어 교회의 질적 양적 부흥의 큰 역할을 하였다.

양육과 제자훈련

개척 초기 양육은 사랑의 교회에서 시작한 한국교회 대표적인 평신도 양육 프로그램인 제자훈련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평신도들은 올바른 성경을 배우고 익히며 담임목사의 철학을 알아가는 소그룹 모임으로 훈련 되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목회 비전을 잘 이해하게 될 뿐 아니라, 올바른 성경공부를 소그룹으로 모여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해서 도합 2년의 훈련을 통해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졌다.

제자훈련의 과정을 마친 평신도 리더들에게 새가족 등록과 정착을 위한 바나바 사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임명하였고, 또 구역장으로 임명하여 평신도 리더로 동역하였다. 점차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에서 훈련된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구역에서 평신도 리더들인 목자 중심의 목장교회로 대 전환을 하였다(2002년 개척 후 7년). 구역장에서 목자와 총무의 조직을 새롭게 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구별적 모임에서 부부 중심의 모임으로 전환을 하였다. 구역장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목장의 목자들에게 위임하였고, 위임을 받은 평신도 리더들은 목장의 모임을 통해서 담임 목사의 비전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전심으로 공유하였다. 담임목사를 비롯해 목회자 그룹은 평신도 동역자인 목자 양성을 위한 집중적인 양육에 집중하였고, 이로 인해 목장의 선순환적 분가(배가)가 준비되고 이루어져갔다.

개척 11년차가 되면서 전도와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계비전 대학을 시작하기 위해서 D12(두날개 사역)을 도입하였다. 그러면서 강한 전도 소그룹을 위한 양육과 리더 교육을 하였다. 일산신성교회는 끊임없는 평신도 지도자와 리더들을

양육하고자 노력하고, 설교를 통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교회였다.

친교와 교제

성도들의 화합을 위한 전교인 체육대회와 여름휴가를 이용한 전교인 수련회를 매년 개최하였다. 특히 성도의 친교와 교제에 대한 소홀함을 없애기 위해서 취미그룹을 많이 열었다. 등산모임, 탁구모임, 테니스모임, 독서모임, 족구모임, 악기렛슨모임 등 친교 소그룹을 필요할 때 마다 만들고 지원하였으며, 성도들의 교제를 기회를 얻을 때 마다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서 많은 모임들이 새가족과 불신자를 교회로 초청할 때 어색함을 버릴 수 있는 좋은 사전 모임으로 사용되었고, 불신자 전도의 통로가 되었다.

증거와 선교

교회가 개척된 초기부터 전도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다. 교회가 개척된 곳이 신도시 아파트 상가 지하였기에 매 주 주중에 담임목사와 사모, 그리고 개척을 함께 한 성도들이 자원하는 시간을 내어 힘에 넘치도록 축호전도(가가호호전도)를 비롯해 여러 전도의 방법을 통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이슬비전도단을 통한 문서전도, 그리고 대각성전도집회(후에 예명제, 즉 예수생명축제로 전환됨)를 실시하여 풍성한 새생명의 결신과 열매들을 맺었다.

또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중 중요한 것이 선교였다.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 세워졌다. 교회가 선교할 때 교회다워진다는 분명한 뜻으로 개척 후 5년 만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를 단독 파송하였다. 그 후 계획속인 선교사 파송과 선교지 개척 및 선교사 훈련, 센터 건립등 선교에 목숨을 건 사역의 중심내용으로 자리잡아갔다.

더불어 교회의 분리개척과 지교회 개척에 대한 꿈과 그를 통해 주변 지역을 물론이고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꿈을 키우며 개척하고 있다. 개척후 지금까지 정발신성교회(담임:박성종목사), 대화신성교회(담임:김태균목사)를 개척하였고, 선교지에도 타감 신성교회(2009년 태국 타감에 개척)를 세웠다. 평신도 선교사 파송(총

15명 파송) 및 총회 GMS 부이사장으로 ‘교회가 선교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교회 개척과 선교지 개척 및 지원 선교사 파송 그리고 꾸준한 단기선교를 통해 세계선교를 이루고자 하고 있다.

사회봉사

사회봉사에 대한 사명은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다양하게 주변의 아픔과 어려움과 연약함을 돌보며 계속되고 시대와 흐름에 맞게 확장되고 있다.

노숙자구제(매주 수요일 노숙자 점심식사나눔)는 처음에는 한, 두 명의 노숙자에게 아주 적은 양의 돈을 주는 식이었다. 특히 찾아가거나 광고는 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도였다. 그런데 담임목사의 한 가지 경험이 대대적인 교회 사역으로 전환되었다. 아래는 정병갑 담임목사의 회고 부분을 요약해 보았다.

한 노숙인이 교회의 문을 노크하였고, 그 노숙자에게 일정의 현금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때가 겨울 이었는데 노숙자의 외투는 너무 허술하고 추위를 견디기에는 터무니 없는 것을 본 순간 담임목사는 자신의 오리털 잠바를 벗어서 노숙자에게 입혀 주었다. 담임목사 개인적으로도 오리털 잠바도 여분이 있는 옷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 주었고 한동안 추위에 몇벌의 옷을 겹쳐 입었어야 했다. 얼마가 지난 후 얼마 후 한 성도가 찾아와 그 당시 오리털 잠바 300벌을 살 수 있는 물질을 현금하겠다고 하였다. 한 벌의 노숙인을 향한 옷 한 벌 드림이 300벌이 되어서 돌아온 역사였다. 그 후 그 물질로 300벌의 오리털 잠바를 구입하여 종로에 있는 선교단체와 연합하여 오리털 잠바 나눔과, 교회 안과 주변에 많은 어려운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겨울을 따스하게 날 수 있는 오리털잠바 나눔의 시간이 있었다.

이와 같은 간증거리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며,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따라서 교회가 주변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변의 주민들이 어떤 형편이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에 일산신성교회는 주변을 돌아보며 주위의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였다. 한가지 예로 요즘같은 시대에 결식아동 즉, 점심을 굶는 초등학교생이 어디있느냐 하지만 그 당시 의외로 많은 어린이들이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어서 합법적인 도움에서

제외가 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시 교장으로 제직 중이었던 집사와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여 결식아동 후원이 시작되었다.

일산신성교회의 주변은 주공아파트와 일반 아파트 사이에 위치했다. 일반 아파트의 생활 수준은 나쁘지 않았지만 주공아파트의 수준은 좋지 않았다. 홀부모 자녀들과 조부모 자녀, 독고 노인과 장애우등 여러 가지 도움과 돌아봄이 필요한 곳이었다. 이 도움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었는데 필요의 손길은 많은 데 도움의 손길을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태였다. 이 필요에 교회는 외면하지 않고 개척 초기에는 담임목사도 주중에 시간을 내고 정해진 시간에 복지관에 나가 노인들의 식사와 다른 부분의 필요에도 헌신하였다. 이에 성도들이 하나 둘씩 자원하는 심령으로 동참하였고 이에 주변에 진정한 교회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봉사와 주변 이웃의 아픔과 필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교회에서 방과후 학교를 시작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 시설과 요양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회봉사 참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기도 하였다. 노인복지 시설과 요양원은 원래 교회부지로 확보한 부지를 교회가 옮기기도 전에 지역 주민의 독거 노인의 어려움과 돌봄의 절실한 필요에 응답하여 사회복지 봉사로 노인치매요양원 건립을 하며 수급자 노인들과 지역 이외의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돌봄으로 사회를 향하여 교회가 눈과 귀를 닫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들어가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한 실례가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교회의 사회봉사 참여는 성도들의 눈물겨운 사연을 가진 동참들을 이끌어 낸다.

한 65세 여성 평신도의 감동적인 사연이다. 자신도 13평 임대주택에 살며 기초수급 대상자로 국가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한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는 매일 가게 주변과 동네를 오고가며 빈병을 수집하고 집에 쌓아두고 일정 양이 모아지면 그것을 대형마트에 팔아 돈을 모았다(일반 주변의 슈퍼에 파는 빈병 값과 차이가 있다). 그 모은 돈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도 안쓰고 오직 더 어렵고 힘든 결식아동과 노숙자 섬김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한 것이다. 자신 보다 이웃의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예배를 통한 감동과 교회가 교회 됨을 위한 교육의 결실이 맺어진 것이다.

또한 일산신성교회의 지역아동센터는 교회의 예산을 적극적인 유치 및 관리 운영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변의 맞벌이 부부 조부모 자녀들을 위한 섬김이다. 특히 시작하여 어느정도 시간이 되어 나라에서 인정하기까지 교회의 재정을 아낌없이 사용하여 교회의 재정사용에 좋은 모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주변의 맞벌이 조부모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굳이 설명이 없는 전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런 교회의 활동과 주변을 향한 목회적 마음과 사회활동에 대한 긍휼의 마음으로 전도의 길은 열렸으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주변의 좋은 소문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는데 좋은 역할을 하였다. “교회를 비록 다니지 않지만 교회를 다닌다면 난 신성교회를 다니겠다” 라는 주변 불신자의 고백은 지역 사회의 주민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증거이다.

일산신성교회 주변의 상가 사람들이 잘 하는 이야기가 있다. 불신자들이지만, 홍보를 부탁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어나 주변에 나갈 만한 교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찾는다면 신성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라고 한다는 것이다. 불신자들조차도 전도의 도구로 되어 자연스럽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성경을 통해 주어진 확실한 교회가 이웃을 향한 사명을 깨달아 실천한 결과이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칭찬 하실 것이고, 더욱 들어사용 하실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그 시대와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필요로 되어지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성장되어 갔다.

이상 일산신성교회를 통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에서 생활과 하나가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말씀을 주일마다 선포하여 세상의 변화에 일조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분명한 것은 예배가 예배가 되어질 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을 예배당에서만 절대 머물게 할 수 없으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향해 교회가 다가서며 녹아질 때 교회는 지역적 부흥과 성장,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자연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 예배가 무너지고 지극히 인간적인 반목 때문에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부정적 영향력을 보여준 교회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영진교회

교회 개척 후 한 지역에서 4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지역에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

교회의 연혁은 교회가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었으며 어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이라 여겨져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971년 3월 동작구 노량진동에 건물 2층 30평의 규모로 장로의 가정에 의해 개척되어 지금까지 47년의 역사를 가진 지역 교회로 자리하고 있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장로의 가정에 의해 개척 후 그해 장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9년 후인 1980년 현 위치의 대지 239평을 구입 교회건축을 시작하였다. 2년만인 1982년 건평 318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준공하였고, 4년 후 1986년 헌당예배 및 개척목사의 위임예배를 드렸다. 그 사이에 5명의 장로 장립과 9명의 권사가 취임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교회의 일꾼이 세워졌고 수많은 부교역자들이 부임과 사임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개척한 담임목사의 은퇴 및 원로목사가 되는 20년인 1991년까지 모두 5명의 장로와 16명의 권사가 세워졌다. 그 뒤 2대 담임목사의 청빙과 위임이 1992년에 있었다. 3년이 지나 원로목사의 소천이 있었으며, 2대 위임목사 4년 차인 1996년에 교회 바로 옆 부지에 교육관 부지를 매입하였다. 그 후 2대 목사로 총 7년의 목회를 하며 1명의 장로와 5명의 안수집사와 6명의 권사를 세웠고 1999년 6월에 사임하였다.

그 뒤 2000년에 3대 위임목사가 청빙되어 5년 동안의 목회를 하였다. 3대 위임목사 재직중에 교회 옆에 주차장 부지를 구입하였고, 장로 1명, 안수집사 4명, 7명의 권사를 세웠고, 1996년에 매입했던 교육관 부지에 비전센타를 2003년에 기공하여 2004년에 연건평 323평으로 준공예배를 드렸다. 2005년 4월에 사임을 하였고, 그 후 2007년 1월에 4대 위임목사가 부임하기까지 1년 8개월 가량의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가 되었다. 4대

담임목사는 부임 후 1년이 지난 2008년도에 위임 목사가 되었다. 2008년 결식아동 후원 시작, 2009년 방과후 학교 및 장애우협회 후원,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시작, 2010년 지역아동센터 출범을 하였다. 그 후 4대 위임목사는 2015년 12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기 9년 동안의 목회에서 5명의 장로와 13명의 장로집사, 15명의 권사가 세워졌다. 4대 위임목사의 사임 후 2년 동안 교회는 담임목사 없이 시간을 지냈고 2017년 연말에 5대 담임목사를 청빙하여 현재까지 오고 있다.

목회철학

담임목사의 목회 철학은 매우 중요하다. 그의 목회 철학에 의해 교회의 분위기가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러 명의 담임목사가 바뀐 역사가 있는 교회에 있어서는 어떤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가 매우 다른 교회의 역사를 쓰게 된다. 앞에서 연혁을 통해 짐작이 가지만 개척 후 2대와 3대 위임목사들은 일꾼을 세우고 교회의 외형적 모습을 키우는데 치우쳐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교세의 부흥이 있었고, 나름 지역과 연대가 되어 연간 행사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원로목사 이후 후임목사들의 단기간 목회 사역 기간으로 보았을 때 교회가 목회자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 어려움이 정상화 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4대 위임 목사는 부임 직후 지역사회의 봉사와 교제와 교류를 교회 안정과 상관없이 미루지 않았다. 더욱이 사역의 범위를 지속해서 넓혀 나갔다. 그 이유를 4대 목사의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에 찾을 수 있었다. 4대 위임목사의 목회 철학과 비전은 다음과 같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46~47절

- 1)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 (예배와 양육)
- 2)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체)
- 3)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공동체 (기독교 인재 발굴 및 양성)

영진교회 4대 비전

- 1) 함께 하는 교회 - 1인 1소그룹 1사역 1명 전도
- 2) 증거 하는 교회 -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문화 센터 및 복지 의료기관 설립
- 3) 가르치는 교회 - 기독교 인재 전문인 양성 기관 설립
- 4) 선교 하는 교회 - 단독 선교사 10명 파송 협력 선교사 40명 후원

목회철학과 비전의 중점이 지역 사회의 이웃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양육하는 것이다.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들며, 교회 자체적인 교육에 힘을 쓸 뿐 아니라, 주변 공교육을 담당하는 학교를 지원하여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공동체로 기독교 인재를 발굴하는데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때 지역사회의 복지 문화 센터와 복지 의료기관을 설립과 기독교 인재 전문인 양성 기관을 설립하는 비전을 세운 것이다. 큰 그림과 비전만 세운 것은 아니다. 작은 실천으로 옮겨진 9년간의 지역과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을 소개한다.

지역을 섬기는 사역

(1) 2008년 영화초등학교 결식아동 후원 - 21세기를 살아가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초등학생이 있다. 이런 현실에 첫 해 10명의 결식아동을 학교 실무 교사들과 협의해서 후원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매년 2명~3명씩 더 범위를 넓혀 25명의 학생들을 후원하였다(익명 후원의 원칙). 이로 인해 초등학교 교사 및 직원들의 교회를 향한 시선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교장선생님은 “지역 교회가 먼저 찾아와 부족한 학생들을 돕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교회의 선한 영향력에 감동을 받고 교회를 향한 시각의 변화를 고백하기도 하였다.

(2) 독거 노인 도시락 배달 - 주변에 소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 및 장애우 가정을 선별하여 매주 수요일 노방 전도와 더불어 지역센터와 연계하여 실시 하였다. 주기적인 방문과 독거노인을 살펴봄으로 응급 상황 뿐 아니라 영혼의 섬과 안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었다. 이 사역은 후에 지역 공공 푸드사업과 연계되어 배달 자원봉사로 전환되었다. 외부적 평가 보다는 내부적 성도들의 의식전환이 되는 결과를

نال았다. 교회 내의 성도들의 의식전환이란 자신들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만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성도 자신들도 어렵고 연약하고 힘들지만 처지가 비슷하거나 더 어려움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것이 성경적인 선교이고 약함으로부터의 선교임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3) 장애인 협회 후원 및 지역주민센터와 연계사업 ‘사랑의김장김치 나눔’ - 지역에 장애인 협회가 있음을 출석하는 성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고, 바로 협력을 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공공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필요에 따라 물건들을 나눠 쓰기 시작했다. ‘아나바다’(1997년 외환위기를 통해 1998년부터 시작된 캠페인;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자)의 작은 실천이기도 했고, 지역 교회와 장애인 들과의 소통의 통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을 통해 매해 가을마다 바자회를 교회가 시작하여 그 수익금과 교회적으로 교회김장을 하기 전에 후원과 헌금으로 지역의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지역주민센터의 사회복지팀과 연계하여 나누었다.

이 사역은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건물만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부흥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고, 성경적 기도와 금식이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이기에 말씀이 삶에서 실천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는 효과를 낳았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

(1)방과후 학교 - 첫 시작은 교회 맞벌이 성도들의 가정에 방치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섬기기 위해서 비전센터(교회 교육관으로 지하1층 지상 4층의 독립건물)에서 시작되었다.

이 사역의 의의는 교회 주일 식사(지하)와 주일학교 예배를 위한 용도로 주일과 토요일에만 사용되고 있었다. 이 장소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2) 지역아동센터 -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돌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작게 시작되었지만 더 확장해야 하는 필요를 느꼈다. 지역 주민들이 성도들의 사정과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들임을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전문적이면서 본격적인 사역으로 전환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서 부교역자의 사회복지 교육도

이루어졌고, 복지사 영입과 전문 원장을 채용하였다. 지역을 섬길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세우고 준비하는 중요한 사역임을 확신하여 교회 예산의 전반적인 수정이 하면서까지 실시하였다. 곧 공식적인 대방동의 지역아동센터로 나라의 인가를 받아 더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의 돌봄이 시작되었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지는 못하지만 교회 주변지역의 필요를 떡과 함께 복음으로 채워가기 시작했으며 지역에서 이미지가 미래가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 미래의 소망이 있는 교회 인식되게 되었다.

중단된 사역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시작하지 아니한 만 못한 사역이 되었다. 4대 위임목사의 주도적인 사역으로 인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선한 영향력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 양성을 위한 기초를 놓게 되었다. 성도들의 마음과 미래를 준비하는 비전들도 담임목사와 닮아가게 되었다.

그러나 4대 위임목사의 사임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 했다. 비록 교회 내부적인 이유로 위임목사의 사임이 있었을지라도 진행되고 있고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의 사역들은 당회와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에게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져 연결되고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했으나, 사임한 목사의 뜻과 비전이라는 특정한 이유를 들어 사임과 동시에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 폐기되었다.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는 기간에는 줄을 지어 설 만큼 인정받는 지역아동센터가 되었으나 돌연 구청에 폐쇄 신고를 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조부모는 손자를 데리고 폐쇄조치에 대해서 사정사정하는 하소연을 하였음에도 냉정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그동안 무료로 돌봐준 것에 대한 공치사를 함으로 그동안 쌓았던 교회의 선한 이미지를 비롯해 복음 증거의 문을 닫아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바자회, 사회적 연대 사업(장애인 공동체와 나눔사역 등)이 모두 중단이 되었다. (현재 홈페이지도 닫은 상태)

이렇게 되자 오히려 시작보다 더 나쁜 반감의 이미지가 지역에 미치게 되었다. 또 재개발이 되는 지역이 되면서 이권 다툼에 더욱 한몫을 하는 거짓 소문까지 교회가 듣게 되었다. 2017년 후반기에 5대 담임목사의 청빙이 있기까지 2년여 동안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고 멈추어진 교회가 되었다.

지역을 섬기고 돌보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두운 지역에 떡과 복음으로 빛을 비추는 등대역할은 교회의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이나 비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이다. 이것을 개인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목사와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인간적인 측면으로 잘못 생각한 처사인 것이다.

이 교회에 대한 결론으로는 교회가 인간적인 측면이 드러나고 사람의 생각이 주된 것이 되면 절대 안된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가 아니다. 당회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은 목사를 비롯해 당회원과 교회 중직자가 가로채서는 절대 안되는 것이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의 예배가 드러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비난과 복음의 문이 오히려 굳게 닫히는 비참한 결과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주가 머리되시고 몸인 교회를 이대로 방치하지 않으실 줄 믿는다. 분명 시작된 하나님의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만 불행히도 지금 교회의 모습은 다음 세대를 향한 방향을 온전히 제시하지 못한 예가 되었다.

제 7 장

진정한 영적예배를 위한 예배의 방향(주열방교회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논자가 섬기는 주열방교회를 비롯하여 교회가 어떻게 진정한 영적예배를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말씀 중심의 예배,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복음을 전하는 예배, 지역으로 참여와 변화를 이끄는 예배의 부분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말씀 중심의 예배

주열방교회의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식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께 경배” 등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공진수목사의 그의 저서 *예배드림*(2008)에서 언급한 예배에 대한 4가지 특징을 요약해 보면 첫 번째 특징, 예배는 장소를 초월한다. 기본적인 예배 장소가 교회이지만 교회가 아닌 곳에서 얼마든지 예배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두 번째 특징, 예배는 시간을 초월한다. 즉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 예배라는 것이다. 요일을 초월하고, 일자를 초월하고 아침과 저녁을 상관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최우선 순위로 놓을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세 번째 특징, 예배는 대상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든지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어느 누구도 예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예배는 형식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형식에 얽매임을 통해 진정 매임 바 되어야 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다(2008:44-48).

예배는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의 구별이 없다.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한 분 만을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

주일 교회 참석하는 성도들은 “오늘 어떤 설교를 들을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다. 그것은 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곧 설교를 듣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말씀 중심의 예배가 세워지고 드러져야 한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자리에 앉아 거룩하게 설교를 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축소해서는 안된다. 즉, 주일을 지키는 것을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는 말씀중심의 예배가 아닐 뿐 더러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말씀 중심의 예배를 설교 중심으로, 그리고 그 설교만 줄지 않고 잘 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하며 설교 중심의 예배인척 하고 있다.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진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설교에는 주일을 비롯하여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붙잡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이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설교만 중심 되는 범위를 뛰어넘어 설교 비롯해 예배의 내용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기 위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설교에 집중되고 다른 순서들은 설교의 들러리 같은 존재에서 변화되어 모든 순서의 내용이 각가의 목적에 맞게, 뜻하신 바를 행하시는 말씀 중심,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으로 풍성해지는 예배를 드러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고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닌 것처럼 다른 예배 순서들이 설교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듯한 예배에서 예배 드리는 내내 순서들이 형식과 순서와 장소와 시간제한을 떠나서 모든 것 위에 기름부으심과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되는 예배로 바뀌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 즉, 기도와 찬송 헌금, 성만찬 인도, 광고, 그리고 안내순서 등 순서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 예배는 조직적으로 구성하여 될 수 있는 한 많은 평신도들이 자신의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훈련되어서 참여하여야 하되 예배준비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며,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핵심 메시지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배가운데에서 초월의 하나님에서 내재하시는 하나님(Imminence of God)을 만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과 떨어져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 속에 존재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만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김세광 2011:38).

다음은 논자가 실천하고 하는 말씀 중심의 예배의 모습에 대한 부분이다.

함께 드리는 예배(명칭: 아우름 예배-세대를 아우르는 예배)

한 달에 한번 이상 정기적인 주일 연합 예배를 주일 낮 예배 가운데 드리고자 한다.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드리는 예배이다(이하 아우름예배라 한다). 어린이 주일학교 및 중고등부, 청년부 자치 모임은 따로 존속하여 각 세대에 맞는 말씀과 형식을 고려한 예배는 그대로 존속하되 정기적인 주일 순서를 정하여 아우름예배를 드리는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주일 낮 예배를 장년과 청년, 청소년들과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함께 아우름예배를 드린 후 각각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가 흠어져 성경공부 및 교제와 자치 활동은 하며 만난 하나님에 대한 나눔 및 선포된 말씀에 대한 적용을 고민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나눔과 말씀 공부를 위해서 교사들과 분반공부로, 소그룹으로 흠어져 모임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 아우름예배를 통해 같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을 통해 은혜로운 영적인 경험을 같이 소유하며, 선포된 말씀 앞에 함께 적용하고, 결단할 때 각각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되는 영성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고전 1:10).

경배와찬양

경배와찬양은 예배 앞에 나온 성도들의 단혀 있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그분의 임재를 누리는데 사용되는 예배의 귀중한 순서이다. 경배와찬양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예배 가운데 드러지는 찬양이라는 것은 분명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하나님의 임하심과 행하심과 행하실 것을 찬양하는 것만이 있어야 한다. 즉, 찬양 안에 나타나는 가사들이 중요한 것이다. 찬양에 대한 선곡이 중요하고, 인도자의 영성 및 멘트도 중요하고, 찬양에 사용되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도 중요하다.

예배 처음을 위한 찬양의 선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심으로 선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찬양 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라는 찬양과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양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라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은 말씀 후 결단의 시간에 선곡을 하는 것이다.

인도자의 영성 및 멘트도 중요한 것은 경배와찬양은 소위 말하는 ‘준비찬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불어 ‘준비찬양’이란 표현은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찬양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한 일을 선포하는 것이고,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고, 마음의 결단을 고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자의 준비된 영성은 하나님의 도구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신의 영성을 철저하게 준비시켜 예배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멘트도 준비됨이 있어야 한다. 물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하였어도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며 준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준비 없이 인도하는 것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과 마음과 은혜를 인간적인 부족함으로 놓치거나 왜곡되이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인도자 자신도 철저하게 훈련되고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성을 겸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이런 준비함을 통해 경배와찬양을 더욱 집중하고 확대함으로 매 주일 뿐 아니라 각 사람의 자리로 돌아가 드러야 하는 매일 드러지는 예배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와찬양이 이어지도록 다짐하고 권면하고 서로 서로가 협력하도록 하고자 한다.

전인격적인 예배 지향

날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항상 경험하는 영성을 위해서는 전인격적인 3가지의 예배를 지속적으로 지켜가게 할 것이다.

첫 번째는 ‘개인 영성 훈련’을 위한 목양을 하고자 한다. 예배는 여러 사람의 모임이지만 만남은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을 가진다. 수많은 대중의 예배 가운데서도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배에서 다수의 회중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지만 결코 임재에 대한 개인적인 요구함이나 간절함이 없이 마음의 문을 닫은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신다. 매일 예배의 자리에 있을 지라도 개인적인 소망과 간구의 자세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적인 예배의 자리 뿐 아니라 온전하고 충만한 영성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영성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즉, 정기적이며 규칙적인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자리인 Q.T.와 기도의 골방을 마련하여 기도의 무게가 깊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야곱이 잠깨어 돌단을 쌓으며 개인적인 영성을 유지하기로 한 결단을(창 28:16-22) 비롯해서 마가복음 1:35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처럼 예수님도 새벽 이른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셨고 임재를 경험하셨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 주심과 같이 하나님과 개인 영성 훈련은 예배의 삶을 사는 출발점으로 삼아 예배자의 기본이 되게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전인격적 예배의 두 번째는 대중 예배이다.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의 고백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여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대중예배’이다. 이는 주일 낮 예배, 저녁(오후)예배, 평일 중에는 새벽예배와 수요일예배 교회에 따라서는 금요기도회, 금요일예배로 모이고 있다. 이러한 대중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매주 정기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타성에 젖은 예배가 될 뿐 아니라 참석해 주는 것으로도 충분히 할 것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향하여 유세적인 입장의 예배로 접근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도행전 2:46-47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회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의 선포였고 낭독이었다.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통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대중예배에 하나님은 특별한 역사를 허락하셨고, 이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으며, 간증으로 일상의 삶에서 증거되며 살아가도록 하셨다.

전인격적 예배의 마지막은 예배당 이외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드러지는 ‘삶의 예배’이다. 삶의 예배에 대해서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무소부재(無所不在) 하시며 어디서나 언제나 편재해 계시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예배당에서만 경배하고 싶을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편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성도의 예배는 삶의 예배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일 예배에 이어서 계속되는 주중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은 말씀 속에 나타난 또 하나의 명령이기도 한 것이다. 마태복음 5: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회자 리더십

담임 목사의 리더십은 중요하다. 리더십에 따라 교회 전체의 영성과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형성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먼저 목사의 리더십은 종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가져야 한다. 이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몸소 실천해 보이시며 모델이 되어 주셨다.

종의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이다. 요한복음 13: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에서 발을 씻어주시기까지

섬기는 종이 되었다. 이는 목사는 성도들의 위에서 권력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를 함께 누리는 자로써 종이 가지는 낮아짐과 주인과 같지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가지며 술선수범의 자세로 움직이는 행함이 있는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의 리더십으로 선한 목자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양들인 성도들을 위하여 희생하고자 준비된 리더십인 것이다. 또한 선한 리더십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리더십이다. 즉,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양들을 위해서 자신이 것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건강한 양, 성도로 살아가도록 지키고 보호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목양의 위임을 해주신 것 같이 예수님의 양들인 성도들을 위해 목사는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또 사명을 가지고 양육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이 선한목자의 리더십은 가지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선한목자의 리더십이 변질되어 악영향을 끼친 경우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리더십의 본질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목양이 목숨 걸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지키고 보호하며 훈련한다. 그리고 성장하며 자라며 영적 양적 부흥을 이루거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처음 가졌던 선한 목자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마저도 버리겠다는 리더십은 사라져간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타성에 젖은 잘못된 영성관리와 성도들의 과분한 섬김의 축적에 따른 착각이 그 이유라 할 것이다. 그래서 변질된 선한 목자의 리더십은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에서 이제는 양들이 목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리는 완전 뒤바뀐 리더십으로 변질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항상 목사는 자신의 리더십 점검과 유지를 위한 끊임없는 성찰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점검과 노력으로 인한 종의 리더십, 선한 목자의 리더십은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성만찬이 회복된 예배

앞 예배의 역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교회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성만찬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 하였다. 말씀선포 즉 설교의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즉 성육신의 말씀과 삶의 모습, 공생애 시간 속에 보이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가르치심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이적과 기사, 비유말씀 등을 비롯해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에 대한 설교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 같은 내용을 가지면서 예배의 형태에 있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말씀과 성례였다.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이다. 이 성례는 예배의 중요한 순서였고, 은혜와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성만찬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죄사함의 축복이 드러났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와 결과에 대한 감격으로 깊은 어려움과 심각한 생활 환경을 버티고 살 수 있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귀로 들리는 말씀이지만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상징적인 몸으로 눈으로 경험하는 말씀이었다. 그래서 더욱 체험하는 은혜는 깊고 컸다. 이 성만찬은 초대 교회 예배에서부터 중요한 전통일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 예배의 핵심이 되었고, 성만찬을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화해행위가 현존으로 다가오는 것이며, 재림과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이 땅에서 현존하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교회 예배 역사에 있어서 좋은 전통이자 핵심이 되는 성만찬을 정기적으로 행하는 예배를 회복하고자 한다. 이미 매월 한 번씩 성만찬 예배로 드리자고 하는 운동이 일부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적지 않은 교회에서 실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성만찬 예배의 회복은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온전한 수준의 회복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의미를 깊이 사모하는 모습의 성만찬 예배의 회복은 교회 안에 놀라운 영성의 회복을 허락하시리라 기대가 된다.

삶으로 선포하는 예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일꾼으로, 심지어 토기장이 라고 하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또한 농부, 건축자로 묘사한다(문태룡 2015:24). 이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도 일상에서 일하셨고, 지금 하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허락된 일로 여기며 영광스러운 생각과 마음으로 일한다면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밖에 없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셨을까? 예수님은 심지어 목수의 삶을 사셨기에 공생애 시작 후 사역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업을 들추어낼 정도로 자신의 일에 충성스러운 분이다.

유진 피터슨은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란 책에서 다윗과 사울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한다(피터슨 2000:43).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일하는 거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빛이 있으라’는 선포가 최초의 작업이었고 그 작업은 온 세상에 광명을 주시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너희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최초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도 생각하게 한다. 뿐 만 아니라 6일 동안의 일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작업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뿌리고 근원이고 시초라는 여기는 것이 맞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도 세상에서 일할 때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찾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로 감격과 기쁨을 일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일하심에 있어서 대충하거나 눈치를 보지 않았다.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몸도 돌보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9: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잠잘 곳도 변변치 않을지라도 오직 일의 주인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일이라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고되고 없었으면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고백 속에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불평하시는 모습은 절대 찾아 볼 수 없다. 심지어 끼니를

건너 떠며, 잠도 잘 못 주무시며 아침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많고 힘들어서 불평하거나 못하겠다고 포기하려는 모습은 단 한 곳도 찾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다니며 그냥 다니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고 하루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일거리를 잔뜩 가지고 오셨다.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즉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아담 앞으로 오게 하였고 그것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다. 엄청난 숫자의 창조물들이 줄을 서서 자신의 이름이 붙여지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어떤 사람을 기가 죽고 질린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은 이 일을 능히 감당하였다. 성경 어디에도 불평하거나 포기했다는 것이 없다. 그 일을 온전히 감당했다는 것이다. 그 옆에는 아담이 이름 하나 하나를 붙이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 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런 성경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일이 처음에는 즐거운 것이었다. 자신을 어떤 존재로 알고 일하는가? 그리고 누구와 일 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

성경의 일은 두 가지 대비되는 시각으로 시작한다.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이다. 앞서 이야기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아담은 하나님의 에덴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는 사명을 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아담과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하와에게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음 쉬고 싶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완벽한 에덴동산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일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과 분명히 같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완벽한 에덴동산에서도 일을 했다는 것은 일이란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문태룡 2015:26).

또 일은 인간에 대한 저주 혹은 형벌이다(2015:27).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보람직도 한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과 아담까지 이르러 같이 죄를 짓고 난 후 그들에게 찾아 온 것은 두려움, 수치, 부끄러움이였다. 더욱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되었다. 추방되어 하나님과 동행은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범죄 후 일이 고통이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먹거리를 위해서 땀을 흘려야 했다. 땅은 아담을 거칠고 숨을 막히게 하는 것으로 변했고, 자신이 친히 이름을 붙여 주었던 어떤 동물들도 자신의 곁에 오지 않았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자 그동안 즐겁고 행복한 일이 땀 흘리는 노동이 된 것이다.

해산의 고통도 따라왔다. 새 생명은 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나 새 생명을 위해서는 여인들이 수 개월에 걸쳐 품어야 하는 인내의 시간과 수십 시간이 동안 끊임없는 고통의 시간을 거쳐야 새 생명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고통이 없이는 환희가 없는 신세가 된 것이다. 불순종의 댓가는 고통 없이는 어떠한 즐거움도, 특히 희생과 땀 흘림과 고통이 없이는 일의 즐거움을 맛볼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누구 보다도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일은 일이다. 그러나 일을 향한 자세를 바로 할 때, 그리고 일에 대한 가치관이 성경적이 될 때에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월요병이나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 등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일을 대할 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을 감당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며 그분의 보혈로 씻을 때 그 일은 우리에게 노동과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즐거움과 전혀 힘들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과 죄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믿고 인식하는 가운데 일을 대할 때,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와 함께 일을 하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일은 곧 예배가 되고 일터는 곧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절대 살아갈 수 없다. 또 일은 하지만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하면서 주어진 달란트를 낭비해서도 안 될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미 없는 일을 하며 인생의 기회들을 허비해서도 안될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후 인간을 향하여 일의 범위를 분명하게 해주셨다. 창세기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요, 능동적인 자세와 대리인이요 청지기로써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하도록 범위를 정해주셨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일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순종의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일을 통한 순종의 예배는 삶의 모든 전반적인 터전에서 드러져야 할 것이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과 생업으로 삼고 보내는 곳을 비롯해, 학업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것이다.

어느 환경과 어느 조건에 있던지 일이란 즐거울 수 없다. 왜냐하면 타락 후 일은 노동이고 노동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자신의 체력을 고갈시키고, 지치게 만들고 피곤해지게 한다. 때론 다음을 기약할 수 없게 한다. 물론 일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좋아하는 것을 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일은 즐거운 오락 시간과도 같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평생 단 한번의 부담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다고 장담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일을 즐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책임이 있고 부담이 되는 순간 피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순간이 분명 올 것이다. 따라서 일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붙잡지 않고는 언제 어느 때 일이 훔날리는 겨와 같이 덧없는 것이요 거추장스러운 것이요, 즐거움이 사라진 불가피한 것으로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더욱 큰 일이면서도 일같이 여겨지지 않는 가사일은 가정이 일터이기에 일하는 자리에서 예배의 삶으로 감당하는 자세를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하는 일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묻는 질문을 가정 주부에게 물었을 때 가정 주부들은 어떤 대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 되는가? 아마도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낮은 자존감의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자존감에 맞는 표현을 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할 것이다.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하는 일이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다른 생업터에서 하는 일 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가정에서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며, 가족들을 위해 식사를 차리고, 자녀들과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돕고, 출근 전쟁과 등교전쟁이 끝나며 뒷 정리를 하며 산을 보내다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기는커녕 점심을 준비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맞이하고, 항상 하지만 항상 밀려있는 가사 노동을 하다가 어느덧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는 남편을 위해 시장을 보고, 자녀들의 학업을 돌보다가 저녁에 식탁에서 식구들이 다 먹은 후 밥을 먹으며 청소하고 치우고 내일을 위해 살림을 준비하고 잠자리에 드는 무한 반복될 것 같은 일상을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가정주부들의 자존감이 높으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런다 딜로우가 *일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는 중요성이란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중요성과는 많이 다르다”(2016:195)고 한 것을 주의깊게 들어야 할 것이다.

가슴에 회사 명찰을 하고, 매 주, 혹은 매월 마다 업무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일하면서 무엇인가를 성취해 가는 일, 혼자가 아닌 팀원들이 협력하여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 자신이 한 일을 통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일 등은 중요성을 평가하고 파악하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자신이 일상적인 삶이고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 되는 일, 특히 가사 일을 통해 중요성을 발견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장 일을 통해 매월 또는 년 마다 눈에 가시적인 성과와 목표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직장일이든, 가정에서 반복적이기는 하지만 가족의 일상생활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게 하고, 소소한 것들을 챙기며, 때론 희노애락을 같이하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필요를 채워가는 가정 일이든 중요성을 가름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일 것이다.

일의 중요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무엇을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가 중요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하며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중요성을 결정하는 열쇠인 것이다.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자존감이 높이 나올 수 있는, 즉 어느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자신만의 일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 가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하고 정결한 것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매 순간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로 흠향되고 있음을 기억하고 확신한다면 가정주부의 일상의 삶의 예배는 그 어떤 대규모 집회와 예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예배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예배인 것이다.

런다 딜로우의 *일상의 예배* 에서 소개한 라틴어 경구를 소개한다: "Laborare est orare, orare est laborare"(2016:189).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오라레 에스트 라보라레” 이것을 해석하면 “일하는 것이 곧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 곧 일하는 것”이란 뜻이다(2016:198).

아침마다 직장을 출근하던, 사업장에서 리더로 사업을 하던, 가정에서 매일 같은 일상으로 보내는 가사일이든, 심지어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이 라틴어 경구를 기억하며 머리에 되새길 때 그로 인한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라 믿고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으시며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않고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들의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쁨으로 돕고 계신다.

예배당 안에서만의 예배로는 어두워진 세상과 빛이 필요하고 소금이 필요한 세상에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예배당에서 드러진 예배가 삶에서도

계속되어짐으로 예배당안에서 높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자의 모습이 직장갑과 사업갑과 학교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예배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대표적인 말씀이다. 이 지상명령을 위해 예배 안에서 은혜를 주시며, 그 예배를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 결단하며, 성도들과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지역으로부터(예루살렘과 유대), 만국과 열방(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제 예배하는 자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고 머물러서는 안된다(온전한 성령을 받으면 절대 머물러지지 않는다). 이에 예배를 통해 주어진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예배의 모습으로 지역전도와 해외선교에 대한 방향을 제사하고자 한다.

지역전도

새생명축제, 대각성전도집회, 잃은 양 찾기, 새가족 초청 주일 등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한 영혼, 즉 교회마다 세워진 지역 속에서 성도들이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사슬에 속해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모습으로 행하여진 대표적인 행사들이다. 예배를 행사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표현은 아니다. 그렇지만 행사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전도의 모습은 시대를 지내면서 불특정 다수의 전도에서 개인적 관계전도로 흐름이 바뀌었다. 과거에는 수고로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현수막 하나만 걸어놓고 기다려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왔고 결신까지 이루어지는 시대였다. 그러나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

교회가 전도를 통해 불신자들이 거부감과 부담감 없이 교회 안으로 초청되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팀 켈러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못된 순서를 지적한다. 먼저 불신자들이 예배에 참석해야만 그 이후에야 “복음전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불신자들을 전도하기에 알맞게 준비됨이 있어야 초청되어지지 준비가 없으면 불신자들은 초청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켈러 2018:249). 즉 교회적인 차원에서 철저한 준비되어짐이 요구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이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전도지에 의해서 교회로 오는 발걸음은 정말 드물게 되었다. 간혹 이어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다니던 교회 출석이 어려워 옮기려는 상황이 된 기존 성도들이 전도에 열심인 교회모습을 보고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불신자들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관계전도를 통해서 온다. 따라서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그들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기에 합당하고 알맞게 예배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불신자들이 개인 전도를 통해서 어렵게 초청되어 나올 때 불신자들은 마음에 벽을 하나 가지고 들어온다. 그리고 그 벽은 들어와서 얼마되지 않아 더 두꺼운 벽을 치던지 아니면 하나씩 내려놓으려 마음을 먹던지 둘 중 하나가 된다. 마음에 닫혀진 문이 한 번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역사이다. 대부분 다음에 나오기를 거절할 핑계를 생각하며 예배 시간을 보내던지, 아님 거부감은 있지만 다음을 기약하는 정도의 마음 문이 조금 열리던지 하는 것이다. 이때 예배를 위한 준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예배의 준비는 단시간에 걸쳐 급하게 준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 시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쇼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신기하게 금방 드러난다. 따라서 불신자들의 마음에 다가가서 그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고 한 걸음씩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예배가 준비되어야 하고 그 준비함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설교자는 그 설교에 항상 불신자와 초신자의 눈높이와

영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말씀을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존 성도들은 너무나 익숙해 있는 언어 사용과 습관적인 행동들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배에 나왔을 때의 경우였지만 그전에 예배당에 나와 앉게 하기까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이미지이다. 교회의 이미지 형성은 두가지 인데 하나는 성도들이 삶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며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는 ‘지역에서 참여와 변화를 이끄는 예배’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을 다루고자 한다.

먼저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은 평상시 성도들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기초 질서를 지키는 태도 즉, 쓰레기 투기 방지 및 분리수거, 교통 신호 지키기에서 시작하여 국가에 대해서도 국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의무(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이다)를 성실히 행하는 태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지키는 태도, 할 수 만 있다면, 더 나아가 힘에 겹도록 양보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태도 등등이 성도들의 삶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기본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다.

지역사회에서 모이는 주민들의 모임에도 참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임이 있을 것이다. 학부모로서의 모임, 공동주택인 경우에 공동주택 입주자 모임, 취미생활이나 친목을 목적으로 모이는 모임등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에도 적극 들어가 그곳에서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믿음의 가치관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도 세상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세상을 향하여 다시 보냄을 받은자요 받을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성도들은 예배를 통한 은혜 받음을 성실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내어야 하며 이것이 평상시에 차곡차곡 쌓여짐으로 몸에 베어나오는 삶의 아름다운 이미지로서 불신자들에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지역전도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세계선교

열방(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을 향한 선교는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요 교회에게 주신 명령이다. 따라서 교회는 힘써 선교를 해야만 한다. 그러나 교회의 자립도에 따라 선교에 대한 선택이 여러가지다. 자립도와는 상관없이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있다. 교회의 사명은 선교임을 붙잡고, 할 수 있음에 더하여 힘에 겹도록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재정적인 자립 또는 먼저 교회 안에 성도를 향한 구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세계 선교를 해야 한다는 교회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무른 것이 아니다. 조건을 달아서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건과 환경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세계선교를 향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제안은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것이다. 선교사를 둘로 구분하였다. 먼저 선교의 소명을 받아 전문적인 신학훈련과 선교 적응 훈련과 선교지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통해 선교지로 파송을 받아 삶으로 살아가며 선교하는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며 때로는 현장에 함께 나가 사역을 돕고, 구체적인 기도로 중보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다. 이에 모든 성도가 선교사들이 되는 목회를 해야 한다. 보내는 선교사는 나가는 선교사들에게 현지 선교사역에 사용될 물질 후원을 한다. 그리고 기도로도 함께 동역하여야 하며, 뜻을 정하고 작성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단기선교를 통해 현지를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히 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이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강한 도전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한다.

선교사 자녀들 케어에 대한 비전도 품어야 한다.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임은 파송선교사는 물론 후원선교사라 할지라도 이 책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MK(선교사 자녀들)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자녀들에게만 영향이 아닌 선교지에 집과 가정과 모든 삶의 조건들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들고 뛰어간 선교사들을 위해 교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 만국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이다. 주열방교회는 예배 가운데 1년 주요 선교지 52개 나라와 선교단체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매주 기도하고 있다.

‘기도’와 ‘후원’과 ‘참여’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성도들의 행동은 지역전도를 뿐 아니라 세계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세계선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은 지역 노회를 통한 연합 파송이나 작지만 선교의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고자 하는 교회들이 모여 연합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

실제적인 예로 GMS(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 소속 한 몽골 선교사는 주파송교회가 없어짐으로 몽골 사역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한 교회 주파송이 아닌 7교회 주파송으로 몽골 선교를 이어갈 수 있었다. 몽골 선교사의 신학대학 동기들이 담임하고 있는 7교회(이레교회, 셋별성문교회, 사랑교회, 가평교회, 도신교회, 강변주사랑교회, 주열방교회)가 연합하여 주파송을 함으로 세계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례가 있다(2016.10 GMS파송). 이 사례는 귀감이 되는 사역이며 이러한 연합의 확장은 힘 있는 세계선교의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확실히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에서 대중적 전도와 관계전도를 통해 복음이 쉬지 않고 지역으로 전해질 수 있는 제언과 세계선교를 향한 자세를 보내는 선교사와 선교연합이라는 방법으로 제언하였다.

이제 교회가 지역사회로 들어가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역으로 참여와 변화를 이끄는 예배

A. W. 토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 (2009) 에서 대로마제국의 멸망원인을 연구하면서 지금 현 시대의 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있다. 즉 로마제국은 최강대국이 되면서 로마인들은 스스로 엄청난 교만에 빠졌고,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고,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도 경계하지도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았던 것이 멸망의 한

원인이라고 했다. 거들떠 볼 필요도 없다고 여겼던 북쪽의 미개한 유목민과 하찮게 여겨
업신여겼던 게르만족, 신이 채찍이라는 별명을 가진 훈족들에 의해서 멸망(서로마제국
476년)을 당했다는 것이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제국이라 할지라도 자신만 생각하며 주변을
경계하고 돌아보지 않음으로 망한 것 같이 교회도 교회 내적 필요만 반응하거나, 교회 양적
성장에만 치우치는 배금주의, 외형과 형식에 빠지고, 교회 안(內)만 팬찮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에 빠져 교회 주변의 신음과 고통과 필요에 대한 외면을 지속한다면 로마제국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수도 있다고 했다.

로마가 내적으로 부패하자 망한 것처럼, 내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세속적인 교회 역시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무관심한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예배드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와
형식과 전통에 충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시대의 기독교가 부상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토저 2009:129)

토저가 로마제국의 멸망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거나, 또는 일부러 보지 않았거나, 귀 기울여야 할 것에 못
듣거나 귀를 닫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거룩함으로 무장하지 않고 일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며, 교회 혼자 거룩한 척 교회의 양적 성장과 그를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등 외적 형식과 몸짓 만 신경 써서 돌보며 자만해 질 때 일어 날 교회
성장의 어려움과 교회에 대한 사회적 반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향한 사회적 냉냉함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더욱
적극적인 방안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 그것을 변화시키거나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의 쇠퇴 및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정체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이다.

교회가 지역을 돌아보며 성도들의 연합된 힘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도우심을
교회를 위해만 쓰는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성도들의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예배를 통해 예배자의 귀는 열려야 하고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배당 밖에서 고통과 흑암 속에서 헤메고 있는 세상이 자신들을 향하여 교회가 돌아봐 주기를 무언중에 부르짖고 있다.

이에 반해 안타깝게도 교회는 예배 시간에 울려 퍼지는 자기 위안을 위한 찬양과 숫적 부흥과 육적 유익과 배부름을 위한 기도만 집중되어 있고, 자기에게만 주신 것을 감사하고, 육구적인 필요만을 구하며 공의 보다는 개인적인 사욕에 관한 응답과 역사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반응하고 있다.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뿐 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소리도 들어야만 한다. 이 의도적인 하나님의 음성은 예배당 안에서도 들을 수 있지만 세상을 볼 때 더욱 자세하고 구체적인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은 어찌 보면 교회나, 목회자나, 여러 중직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그 부르짖음을 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부르짖으라고, 기도하라고, 세상에서 구별하여 그의 품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주시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제 예배자들의 귀는 세상이 교회를 향한 부르짖음을 향하여 열려져야 한다.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더 풍요로운 것 같지만 절대 아니다. 세상에는 결코 만족한 기쁨이 없고, 절대적인 빈곤이 존재하고, 어둠이 존재하며, 속이여 감추어진 어두운 그늘들이 즐비하며, 즐거움을 가장한 슬픔과 참된 만족이 없는 곳이 세상이다. 세상도 분명 참되고, 영원하고, 진리를 사모한다. 그러나 그것들이 예배 가운데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모르면서 부르짖고 찾는 세상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배를 통한 참된 만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세상에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소망하며 살아간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족과 즐거움과 풍요로움이 진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먼 훗날, 혹은 죽음 이후에만 갈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은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물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의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것은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배하는 성도들이다.

우리는 사자와 같은 사탄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할 수 만 있다면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 곳을 떠나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니 세상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한다. 세상을 향해, 예배당 밖을 향하여 열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든 반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통해 변화의 복음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것을 위하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귀를 열어야 한다.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세상의 종음을 쫓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통 속에 부르짖음에 반응하고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참된 안식과 평화가 있는 하나님 앞으로 올수 있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이끌어야 한다.

이제 구체적으로 주열방교회를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지역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안한다.

주열방교회의 지역 상황

* 교회 지역적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143번길 28-34

* 교회 주변환경: 민영 아파트와 주공임대아파트, 재개발이 필요한 오래된 단독주택이 함께 공존하는 곳으로 주거밀집 지역이며 화정동과 함께 택지개발지구로 넓은 도로와 학교, 녹지가 잘 조성된 곳이다.

* 교회 주변교통: 일산과 광화문을 잇는 중앙로와 강변고속도로인 올림픽 대로와 제2자유로 및 자유로 연결이 용이하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접근이

용이하며 지하철 화정역과 경의중앙선과 KTX의 역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행신역 중간에 있어 전반적인 교통이 매우 좋은 조건의 위치이다.

*** 교회 주변학교**

혁신학교로 지정된 서정초등학교를 비롯해 행신초등학교, 신능초등학교, 무원초등학교, 소만초등학교, 성신초등학교, 가람초등학교, 행남초등학교, 용현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9개와 신능중학교, 무원중학교, 행신중학교, 가람중학교, 서정중학교 등 해서중학교 5개, 무원고등학교, 행신고등학교, 서정고등학교, 백양고등학교, 능곡고등학교 등 해서고등학교 5개로 총 19개의 학교가 있다.

*** 교회 주변사회교육시설**

고양시여성회관과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토당청소년수련관이 있다.

주요방교회의 지역사회봉사 비전

학원 전도 비전

교회 주변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총 19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많은 학원 밀집지역이다. 또한 이들의 부모들은 맞벌이 부부로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방과 후 자녀 돌봄이 어려운 형편이다. 그래서 학업을 위해 학원을 다니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형편이 이유도 학원 수업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도 학교 수업에 이은 학원 수업, 부모들은 직장 생활로 인해 가정에서 함께있는 시간과 대화의 시간이 부족해짐으로 나타나는 위험은 가정 안에 사랑과 하나 됨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의 무너짐의 위험을 교회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여러 학원의 수업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하고 그로인해 가정 안의 사랑을 더 없어져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교회가 섬김과 돌봄의 사역을 통해 선순환으로 돌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는 주일에는 사용되지만 주중에는 거의 사용 되지 않는 훌륭한 공간들이 있다. 이것을 주중에도 지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있는 공간을 활용할 뿐 아니라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지역 사회의 자녀 돌봄을 위한 사역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사역으로는 방과 후 학교, 형편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을 것이다. 때로 사역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을지라도 교회의 형편이 뒷받침 되지 않을 때는 지역 복지 센터와 연계하는 방법으로 인적자원을 통한 섬김의 방법도 있다. 교회가 지역의 필요를 인지하여야 하고 그 필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요점일 것이다.

방문케어 비전

교회 주변에는 가정형편이 넉넉한 주거환경도 있다. 반면 어려운 정도를 쉽게 파악이 되는 지역도 있다. 이곳에는 홀부모가정, 조부모가정, 독거노인, 거동불편 가정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파악은 지역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 담당과 연계되어 그들을 필요를 체계적으로 들어줄 수 있다.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성도들은 받은 바 사랑을 흘러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한하신것 만큼 교회가 세상을 향해 흘러보내야 할 사랑 또한 무한하게 흘러 보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홀부모, 조부모, 독거 노인, 거동불편 가정을 향하여 교회가 할 수 있다면 사회복지 센터와 연계하여 도시락 배달 자원 봉사 및 어르신 가정 또는 거동불편 가정, 장애우 독거 노인 가정에 재가방문 이미용 서비스 또는 사회복지 시설의 방문 목욕 서비스에 인적자원봉사로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달란트 사역<재능기부 사역>

평소 보다는 방학기간을 이용한 청년부 재능기부 사역이다. 맞벌이 부부일수록 방학에 대한 부담감은 매우 크다. 이에 방학 중 대학 청년들의 전공과 재능을 통하여 방학

중 특강을 개최하여 물질적 어려움으로 배움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가정에서 홀로 방치되는 어려움을 도와주는 지역주민을 섬기는 사역을 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주열방교회는 주중 ‘신바람 나는 탁구교실’이 있다. 교회 안에 탁구선수로서 높은 수준의 재능을 가진 성도가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주중 수요일에 지역에 주민들을 섬기며 탁구 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헌신하고 있다.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지역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값없이 주변으로 흘러 보내는 선순환적 헌신의 흐름이 참으로 바람직한 교회의 사역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다양한 달란트 사역을 통해 헌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셔틀 차량봉사 비전

교회가 위치한 지역 주민들은 20분 넘게 걸어서 행신역 또는 화정역으로 이동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 또는 퇴근을 한다. 자가용이 있는 사람들은 환승을 이용하기도 하고, 가족 중 일부가 운행을 해 줌으로 어려움 없이 이동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걸어서 뛰며 서둘러 지하철로 이동한다. 교회가 이러한 틈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작은섬김을 할 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교회 앞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을 평일 아침 시간에 제약을 두고 셔틀 버스 운행을 서비스하는 것이다. 소소하고 간단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작고 소박한 섬김으로 빛이요 소금으로 충분히 전달 될 것이다.

훈련과 준비를 통한 섬김

개발하고 발전시켜 숙달된 재능을 갖추는 일에 교회가 재정적, 기능적 투자를 통해 지역을 섬기는 사역들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에 필요함이 있다면 이, 미용 기술을 습득하여 병원에 환우 및 장기 입원환자 및 장애우 무료 이미용 서비스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고, 발마사지를 훈련하여 독거노인 및 거동 불편 환자의 돌봄, 호스피스 훈련과 노인 장기 요양 자격증 취득 등으로 고령화 사회에 맞게 준비하며 섬겨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서 중요한 기본을 세워함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데도 마찬가지이지만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라면 모든 평신도들이 일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목사 혼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며,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열정을 가진 목회자라 할 지라도 혼자 독단적으로 나서서는 안 될 것이다. 목회의 중요한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며, 그 발견된 은사를 잘 성장시킬 뿐 아니라 썩어 사장되도록 방치 해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평신도 들의 은사 개발과 사용은 교회의 사역을 분산해서 목회의 부담을 덜어주고, 목회자가 집중할 수 있는 것에 더욱 집중하게 될 것이다.

주열방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부유하지는 않지만 척박하고 어려운 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많은 곳은 아닐지라도 어려움과 도움의 손길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필요로 하는 부르짖음에 교회는 항상 눈과 귀와 손과 발을 준비시켜야 하고 섬기는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를 반드시 맞춰야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 겸손의 왕을 본받아 섬김의 본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갈 때 지역사회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사도행전의 변화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제 8 장

결론

요약

논자는 이 논문을 통해 교회의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이해를 연구함으로써 다음 세대를 통해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영적예배의 모습을 제시하고자 했다.

서론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논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왜 필요한가를 보편적인 인식과 예배지금의 한국교회가 처한 위기와 크리스천 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제시했고, 이 연구의 배경, 목적, 목표, 중요성, 중심과제, 연구의 질문들, 연구의 방법과 연구 개관, 연구의 제한점 등을 제시하였다.

2장의 예배의 정의와 목적에서 예배의 정의를 한자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와 독일어로 각각 그 원어적 의미와 신학적, 기독교론적 의미를 살필 때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항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순종, 복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예배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삼는 시간이 예배라고 하였다. 예배의 목적 7가지 즉,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 임재를 경험 하는 것,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확인하는 것과 두렵고 떨림으로 의지하고 순종하기 위함이며, 십자가 앞에서 자복하며 회개를 통해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자리이며, 세상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목적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다.

3장에서는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예배를 장소적 개념, 성경의 시간적 개념, 그리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다. 예배의 장소(마룸)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입장에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정해 주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장소는 공동 모임을 기본으로 가정의 모임도 확실하게 성경적인 예배의 장소임을 알게 되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배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며 성령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오기를 기뻐하심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는 제사보다 순종이 나음을 기억해야 하겠다. 특히 예배의 때에 대해서 안식일과 주일의 예배에 대한 것의 기준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준 됨을 확인을 하였다. 신약의 예배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성전 중심이었던 예배가 교회로 바뀌면서 상상할 수 없는 경우의 수로 확장되는 것을 알게 되며, 그 확장에는 우리 자신의 성전됨이 포함되어 있다.

4장에서는 한국교회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한국교회의 전통예배와 새시대 예배로 구분하여 볼 때 결론적인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하고, 새것을 잘 살펴 장점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설교 중심인 말씀 중심이 듣는 중심이 아닌 성경말씀과 설교가 판단과 행함의 기준점으로 잡혀져야 하고, 잃어버렸던 성찬이 더 많은 시간과 행함의 기회를 예배 시간에 집어 넣어 깊은 감동으로 말씀 중심과 함께 예배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새시대 예배는 특수한 경우와 교회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 직장 학원, 심지어 군에 입대한 후에도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여지게 된다. 특히 박용규의 학술 논문지인 *한국교회의 예배의 변천,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19세기에서 2000년에 이를 교회예배의 변천은 다음 세대를 위한 방향을 잡기에 좋은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적극적인 평신도의 예배 참여가 흥미로웠다. 평신도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는 많이 배워야 가능하거나, 제자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받은 은혜를 통해 헌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안에 예배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뿐 아니라 그 은혜로 자발적인 평신도들의 많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 부흥의 초석이라는 것이 예배의 변천에서 얻은 교훈이었다. 또한 시대에 따른 예배의 변천으로 사라진 것으로 교회의 권위가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해 본다. 교회가 잘못과 불의를 향하여 치리하고, 그 치리를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와 회복의 기회로

사는 모습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해 본다. 드러지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로 변환되어간 것을 한국교회예배의 변천 과정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다시 보는 예배를 지양하고 드러지는 예배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러지는 예배가 세워지길 위해 사역해야 할 것이다.

5장은 논자가 섬기는 교회의 평신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11가지 질문지를 만들어 서베이를 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4가지로 구분하여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의식을 먼저 예배의 의미와 목적, 두 번째는 예배자로서 가지고 있는 영성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평신도들의 자세와 반응을,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실천적 모습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였다.

6장은 논자가 총 11년 6개월 동안 섬겼던 두 교회 즉, 일산신성교회(부목사 7년) 및 영진교회(부목사 4년 6개월)를 실제 사례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교회 담임목사의 비전과 목회 철학을 바탕으로 예배의 의미를 잘 적용한 교회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반면 예배와 삶과 생각의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등을 돌리게 되는 부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평가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7장은 이상 모든 결과들을 중심으로 주열방교회의 다음세대를 위한 예배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열방교회의 예배 가운데 말씀 중심 그리고 성찬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예배는 예배당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기에 예배자로, 현재 뿐 아니라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야 함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는 먼저는 지역을 향해 흘러 보내고 보내는 선교사 되어 선교지에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변화를 이끄는 예배로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의 필요가 무엇이지 귀를 기울이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때 말과 호소가 아닌 예배를 통한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고, 꼭 필요한 존재요 지역의 등불과 같이 빛을 내고 소금으로 맛을 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다. 분명하다. 세상의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예배가 드러져야 한다. 드러진 예배를 통해 주시는 영성을 가지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진정한 영적 예배의 방향을 제언함에 있어서 결과가 앞으로 일어나게 되는 미래의 일이지만 마음에는 풍성한 열매의 확신이 든다. 지금 현재의 다짐이 식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만남을 기대하며,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끊임없이 예배자의 자리를 찾을 때 하나님의 뜻(예배)은 “하늘에서 이론 것 같이 땅에서도”(마 6:10)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릭무쵸 2007:214).

하나님이 원하시고 지정하는 장소 (마콴makom;מקום)로 각 교회의 공동체가 될 뿐 아니라 세밀하게 구분되어 성도 한사람 자체가 모두가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갈망하시는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 모든 성도의 가정 안에서, 생업터와 직장과 학교를 비롯하여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뿌려져야 할 지역 위에 성취되기를 기대한다(구스타프슨 2006:274).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가 세워짐으로 영성의 연대가 일어나고, 이런 영적인 경험의 유대감으로 인하여 세대 차이를 극복하여 주안에서 하나가 되는 몸 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한다.

말씀과 성찬의 전통예배의 유형과 구도자를 위한 열린예배 및 찬양예배 등 여러 다양한 형식의 예배를 통하여 형식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

삶의 예배자가 되어 지역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 불신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예배로 세워가야 할 것이다.

개인적 영성훈련과, 매일, 매순간, 매번 드리는 예배가 타성에 젖지 않고 마음을 다해 드러짐을 위해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한다. 목회자의 섬김과 종의 리더십을 깊이 있게

유지하며, 성만찬이 예배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말씀과 성찬의 두 기둥으로 참된 예배가 세워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적 예배가 드러짐으로 지역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며, 따로 분리된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어두운 자리와 썩어져 있는 자리로 들어가 빛을 내고 소금의 녹아짐으로 맛을 내는 역할을 교회와 평신도들이 협력하여 감당해야 할 것이다.

인용 문헌(REFERENCES CITED)

- A. W. 토저
 2009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 안보현 역. 서울:생명의 말씀사.
 2017 *이것이 예배이다*. 이용복역, 서울:규장.
- R. 레어드 해리스, 글리슨 L. 아처 2세, 브루스 K 월트케
 1991 *구약원어신학사전*. 서울: 요단출판사.
- 게르하르트 킷텔, 게르하르트 프리드리히
 1985 *신약성서 신학사전*. 서울: 요단출판사.
- 게릿 구스타프슨
 2006 *멈출수 없는 예배의 열정*. 서울: 예수전도단.
- 공진수
 2008 *예배 드림*. 서울: 두란노.
- 김세광
 2011 “예배 본질의 연구.” *신학과 실천*, 23호.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자원부 편.
 2009 *16세기 종교개혁과 개혁신학의 유산, 개혁신학과 교육 시리즈(1)*.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두란노 HOW 주석 구약시리즈 3
 2007 *레위기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목회와신학 편집부 두란노. 49.
- 레이몬드 아바
 1974 *기독교 예배의 원리와 실제*. 허경삼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릭 무초
2007 *예배의 해답*. 도희진역. 서울: 인피니스.
- 린다 딜로우
2016 *일상의 예배*. 오현미역. 서울: 좋은씨앗.
- 마르바 던
2017 *예배에 대한 중요한 핵심12가지 질문*. 정종원 역. 서울: 위십리더.
- 매튜헨리
1982 *요한복음(상)*. 이기문 역. 서울: 기독교문사.
- 문태룡
2015 *일터에서 하나님 임재 연습*. 서울: 쿤란출판사.
- 브루스 밀른
2017 *기독교 교리 핸드북*. 안종희 역. 서울: IVF한국기독교학생회.
- 새성경사전
2012 *김의원, 나용화 공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유진 피터슨
2000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이종태 역. 서울: IVP.
- 이덕주
2007 *한국교회 처음이야기*. 서울: 홍성사.
- 정일웅
1998 *기독교예배학개론*. 서울: 솔로몬.
- 정장복
1999 *예배학개론*.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 제임스 맥도널드
2015 *버티컬 처치*. 정성목역. 서울: 두란노.

- 존 H. 리스
2001 *개혁교회와 신학*.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지용훈
2017 *말씀 그대로 예배하라*. 서울: 규장.
- 찰스 스코비
2017 *성경신학*. 강대훈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 탐 크라우터
2016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12가지 이유*. 정민영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4 *처음처럼 예배하라*. 장택수 역. 서울: 예수전도단.
- 팀 켈러
2018 *고기잡는 사람들: 21세기의 복음전도 예배*. 박상희 역. 서울: 위십리더.
- 박용규
2012 “한국교회 예배의 변천, 역사적 고찰.” *성경과 신학*, 63권: 111-175.